

성도의 빛 11

1989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1989년 11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통 권 : 제280권, 제35권, 제10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10KO
Printed in Korea 11/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

- 2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 7 나이트 가족 : 2부.....윌리엄 지 하틀리
- 13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함.....수잔 이스턴 블랙
- 18 미네르바 데이처트 : 예술가.....언더우드 핀보로우
- 25 응답.....딘 이 헤인즈
- 26 다리는 잃었으나 마음은 잃지 않은 그 사람.....버디 스트롱
- 28 매일의 용기.....론 우즈
- 32 나의 독신 친구들에게.....존 케이 카맥 장로

방문 교육 메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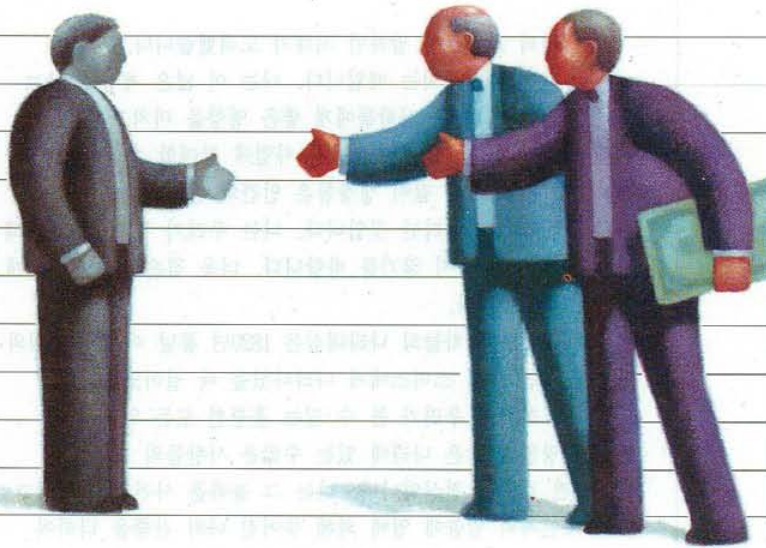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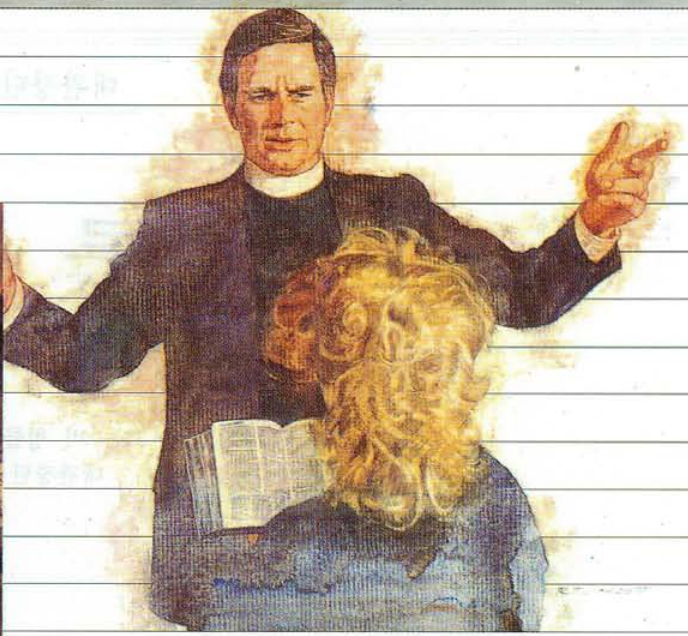
- 38 삶은 영원함
- 39 청소년과 함께 나눔: 봉사에 관한 메시지
- 40 저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딘 엘 라슨 장로
- 43 참된 봉사.....커튼 앤더슨
- 44 내 형제의 성공.....글렌 엘 페이스 감독
- 47 선교사가 봉사하는 이유.....에이 린 스크스비

어린이란 :

- 52 친구 대 친구.....제넷 피터슨
- 53 엄지 손가락 사마.....그렉 라슨
- 56 지혜의 말씀
- 57 심심풀이 : 레이먼인 사무엘.....줄리 와델
- 58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그리스도 유타 예술가 미네르바 데이처트(1888~1976) 작 본지 18페이지 미네르바 데이처트 참조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나는 이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 이 힘차고 훌륭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장함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결코 그에 대해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놀랄만한 하늘의 나타내심은 1820년 봄날 아침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훌륭한 모든 일들은 그 놀라운 방문과 많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간증의 결실입니다. 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참되다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에 영에 의해 주어진 나의 간증을 더하여 말씀드립니다. 그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나누신 대화는 오늘날 우리의 대화처럼 실제로 있었던 개인적이고 친밀한 것이었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요셉이 예언자였으며 그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소리 높여 간증드립니다.

1845년, 요셉이 죽은지 일년도 되지 않아서 팔리 피 프랫은 예언자의 업적과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시와 같이 아름다운 이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했으며 우리는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는 충만한 복음을 회복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그는 영광스러운 날의 새벽을 밝혔으며, 우리는 찬란한 광채가 발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적은 한 사람’이었으나 수천이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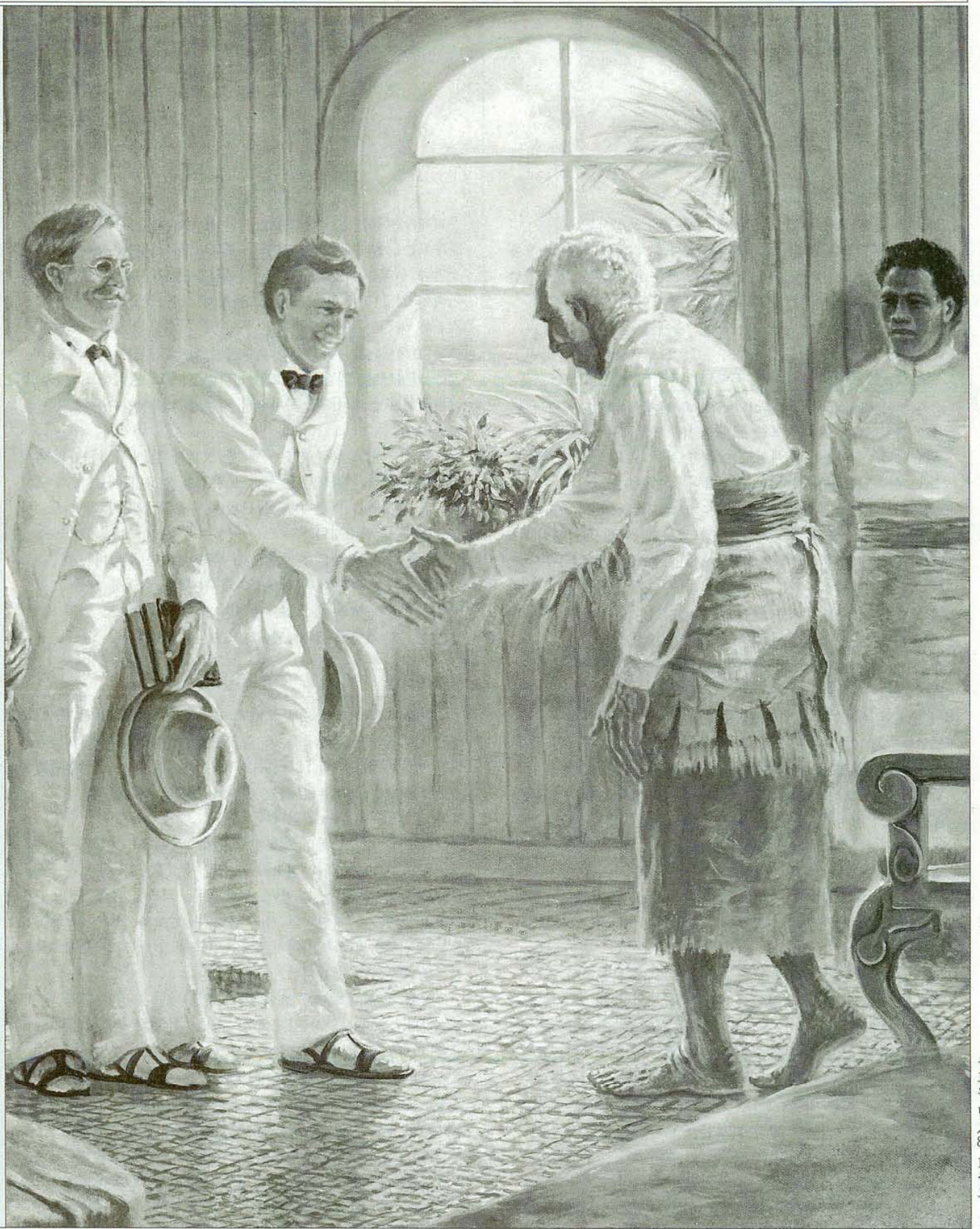
“그는 돌을 떠낸 사람이며...우리는 그것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게 해야 한다.”(밀레니알 스타 5(1845년 3월) : 151~52)

우리는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에 진실하고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슬픔과 좌절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사적이며 궤변적으로 덤비는 반대도 각오해야 합니다. 일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온유함과 근엄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 체제에 대해 다투지 말고 꾸준한 길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반대자의 세력이 강해질 것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하게 우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지지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조용히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과 근엄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



체제에 대해 다투지 말고 꾸준한 길을 추구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계명으로 전합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박해를 자초할 것이며 반면에 그대로 행하는 자는 늘 성신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언합니다.”

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꾸준한 길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가치관과 표준이 변화하며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그릇된 길로 이끄는 프로그램이 만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고 있으며 공격 또는 사적인 도덕성에서 그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그것을 보고 교회에서도 보며 심지어는 인간의 궤변에 의해 그릇된 길로 인도된 몇몇 회원들에게서도 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의 힘이 되어온 전통을 내어 던지고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별도 찾지 못한채 해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폴리처상 수상자로서 역사가였으나 지금은 타계한 바바라 터크먼 여사의 의미 깊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대중을 인도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반적인 견해를 듣고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고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며 저것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 지침이며 저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저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되는 면에 대한 표준을 말해 주는 도덕적인 지도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허약한 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문제는 표준이 없는 것으로 그로 인해 많은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주장하기에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 표준에 따라 살고 그것을 수호하는 데 확신이 없습니다. 표준을 보여 주어야 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 도덕, 행동 또는 심미적인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데 널리 퍼져있는 파괴적인 강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표준은 비틀거리고 있지만 교회 회원인 우리가 그와 같이 방황한다면 그에 대해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험을 거친, 효율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것만큼 우리는 진진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님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표준은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없거나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 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간교한 논리가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에 스테이크 축복사를 지낸 한 형제가 한 말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해외 왕국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하며 또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만족을 느끼는 것은 순종함으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개인에게 임하게 되며, 그는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 그가 속해 있는 단체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표준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게 주어진 표준을 지킨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가 보이는 모범은 우리와 관련된 대업의 미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지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어떠한 회원도 모호하게 생각되지 않도록 많은 것에 대해 권고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덕성, 이웃, 율법에 대한 순종, 국가에 대한 충성, 안식일 준수, 술과 담배의 사용 금지, 십일조와 헌물, 가난한 자를 보살핌, 가정과 가족의 발전, 복음을 전하는 일 등에 관해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언쟁이나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유혹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받고 과소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만



Harold I. Hopkinson

속해 있는 권능을 불법적으로 취한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변경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터크맨 여사의 말을 인용하여 분명히 일어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며 저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 지침이며 저것은 아닙니다.”

실망이 되고 심히 걱정스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결정해야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녔던 신앙

이 교회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의 조모께서 한 다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할머니는 영국 남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브라이트에서 보낸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말합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푸른 서섹스의 언덕이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영이 그것의 참됨을

“그날 우리는 손수레 대열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강에는 많은 얼음 덩이가 떠내려 가고 있었다.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열 네 사람이 죽었다.”

속삭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친척과 이웃들은 비판적이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비웃고 그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폭도들까지 있었습니다. 물론으로서 믿음을 천명하고 그 믿음을 옹호하며 침례를 받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도덕적인 용기로 묘사되는 훌륭한 자질인 용기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가족은 리버폴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약 구백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라이즌호에 탔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그들은 “안녕, 나의 조국여”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제트 여객기로 여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주 동안 항해한 끝에 그들은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기항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하기 위해 증기선을 갈아 타고 아이오와시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소 두 쌍, 암소 한 쌍, 마차 그리고 천막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무리의 손수레 부대와 여행하며 돕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아이오와시에서 그들의 두 살도 안된 막내 아이는 추위에 못이겨 죽었으며 무덤에 묻혀 그의 가족 중 아무도 다시는 그곳을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열세 살된 소녀의 역사에서 몇 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4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를 여행하여 플레이트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날 우리는 손수레 대열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강에는 많은 얼음덩이가 떠내려 가고 있었다.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열 네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캠프로 돌아와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불렀다. 그날 밤 어머니가 왜 우셨는지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여자 동생이 태어났다. 9월 23일이었다. 우리는 에디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에디스는 육 주일 동안 살고는 죽었다. [죽은 아기는 스위트워스의 마지막 교차점에 묻혔다.] “[우리는 폭설을 만났으며 나는 길을 잃었다.] 발과 다리가 얼었다. 사람들이 눈으로 내 다리를 문질렀다. 그들은 내 발을 물 속에 담갔다. 말할 수 없이 아팠다.

“테블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지독히 추웠다. 우리는 그곳에다 많은 소지품을 버렸다. 그날 밤 동생 제임스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은 죽어 있었다.

“내 발은 푹푹 얼었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의 발도 얼었다. 어디를 가나 눈이었다. [천치가 눈에 덮여 있었으며 와이오밍의 바람은 매서웠다.] 우리는 천막용 말뚝을 박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서는 브리감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 주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노래를 불렀으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다. 어머니는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43세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1856년 12월 11일 밤 9시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살아 있는 우리 형제 4명 중에서 세 명이 동상에

걸렸다. 어머니의 시신은 포장 마차 속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브리감 영이 왔다. 어머니를 잃고 발은 푹푹 얼은 우리 형제를 보자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의사가 나의 발을 절단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자매님들이 어머니를 무덤에 안치시키기 위하여 수의를 입혔다. 발의 치료가 끝나자 그들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여 주기 위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아, 우리가 어떻게 견디었는지? 그날 오후 어머니의 시신이 매장되었다.

“나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한 말을 가끔 생각했다. “폴리야, 나는 나의 자녀들이 아직 어릴 적에 시온으로 돌아 가고 싶단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리 앤 고블 페이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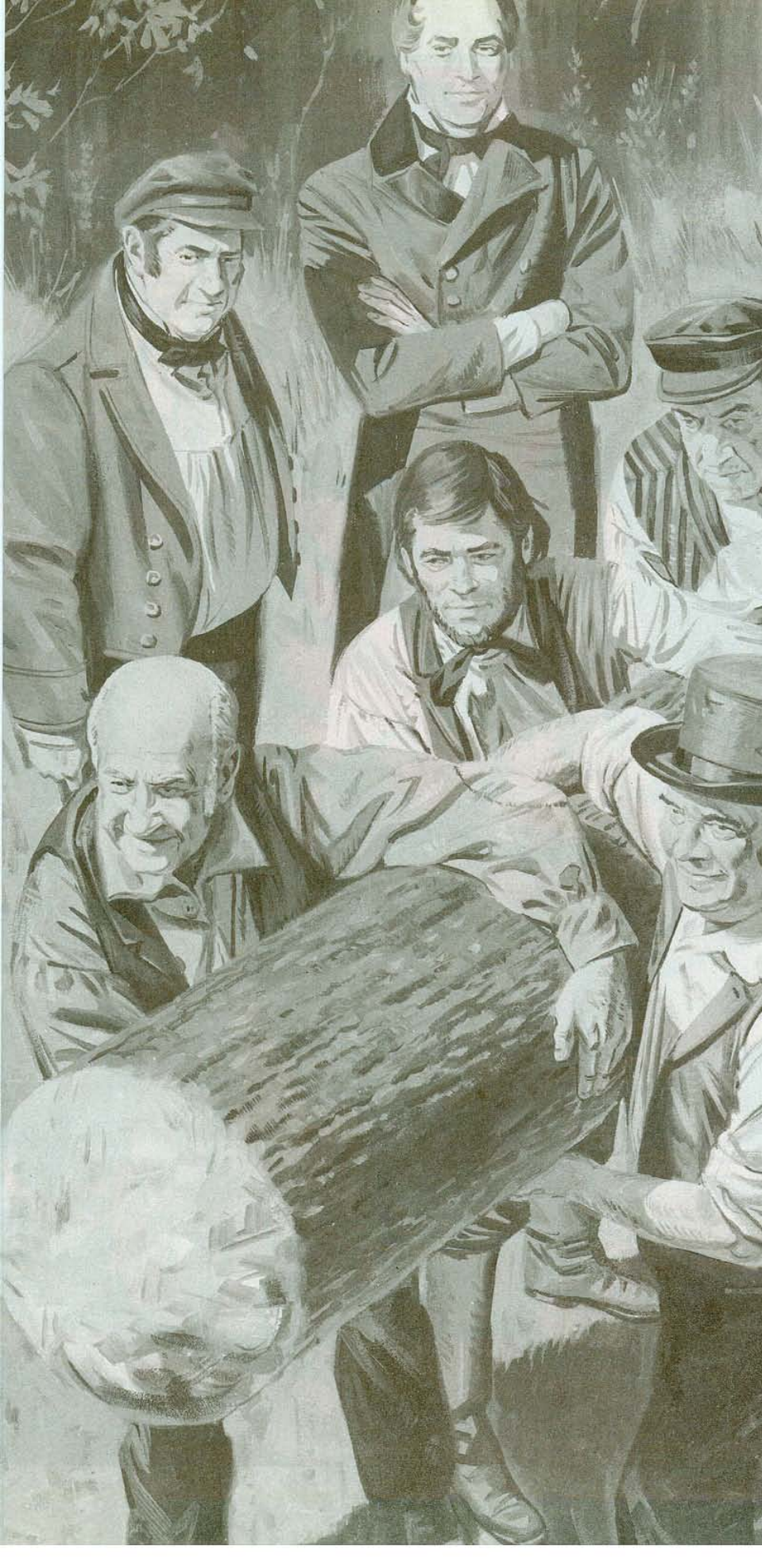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그마한 비판을 견디어 내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 작은 희생을 치루는 일이 과연 놀랄 일이겠습니까?

논쟁이나 언쟁을 피하고, 감정을 상함이 없이 꾸준한 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왕국 건설에 매진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당면합니다. 선으로 악을 극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며,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의 메시지에 대답할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세력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임무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빕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사항 :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토론 때 다음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1. 헝클리 부대관장은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세상의 표준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3. 적에 대한 최대의 방어 수단은 주님의 예언자의 가르침에 조용히 따르는 것입니다.
4. 실망이 되고 심히 걱정스러운 때도 있다고 헝클리 부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그것에 당면합니다. 선으로서 악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이트 가족

2부

윌리엄 지 하틀리

10월호에서 윌리엄 지 하틀리는 조셉 나이트 가족이 어떻게 요셉 스미스와 알게 되었으며 그의 거룩한 사업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는가에 관해 이야기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뉴욕에 있는 집과 토지 및 생활을 버리고 1832년에 오하이오주로 가는 예언자를 따라갈 정도로 강했다. 1833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미주리주로 옮겨 갔다. 그러나 미주리주는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겪은 갖가지 곤경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의 전조에 불과했다.

미주리주 인디펜더스 근처에서 나이트 가족은 그 지역이 시온의 중심지가 되고 대성전을 건립할 장소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 열두 사람이 시온의 기초로 최초의 통나무를 놓았으며, 그 중 다섯 명이 나이트 친척이었다. 뉴웰 나이트는 잭슨군의 성전 부지를 헌납한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의식을 통해 나이트 가족은 그들이 겪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이트 모친은 오하이오로부터 오는 길에 심하게 앓아 뉴웰은 관으로 쓸 나무를 운반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모친의 “가장 큰 소망은 시온 땅에 발을 딛는 것이며, 그녀의 몸을

죽어 피아

부

그곳에 묻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주리에 매장된 최초의 성도가 되었다. 그해에 나이트 가족중 두 명이 더 사망했다. 한 사람은 뉴웰의 누이인 에스터였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삼촌인 아론 컬버였다.

교회의 이들 전초지 이주민들은 협력하여 살기 위해 재산을 헌납하는 한편 집을 짓고 울타리를 두르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교회에서 미주리주를 관장하는 대제사 평의회를 구성했을 때 뉴웰 나이트는 그 평의회 일원이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콜스빌 지부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지부장 일을 했다. 여섯 명의 나이트 가족 남성들은 인디펜더스 성전 건립 계획의 일부로 노동을 할 것을 결심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과부가 된 그의 처제인 페베 크로스비 펙과 재혼하였다. 그녀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재혼한 뒤에 그들은 두 명을 더 낳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열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1833년 후반에 미주리 주민들은 나이트 가족을 위시하여 성도들을 잭슨 군에서 추방했다. 폭도들은 필로 디블을 쏘았다. 그러나 뉴웰 나이트는 놀라운 신권의 축복으로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이트 가족은 추위를 무릅쓰고 미주리강 선착장으로 달려 갔다. 조셉 나이트 이세는 뽕뽕 언 땅을 맨발로 걸어간 여인과 아이들에 관해 말했다. 나이트



가족은 재분소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샬리 나이트의 동생인 에밀리 콜번 슬레이드는 참혹했던 그 겨울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겨울이 시작 될 때까지 텐트에서 생활했으며 바람과 폭풍 속에서 음식을 준비했다.”²

불량한 음식과 피신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은 말라리아로 짐작되는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다. 샬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사산했으며 그녀도 곧 죽었다. “아내는 참으로 복음에 대한 순교자로 죽은 것입니다.”하고 그녀의 남편 뉴웰은 그녀가 죽은 뒤에 말했다.

1835년에 뉴웰은 성전 건립을 돕고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오하이오주로 여행했다. 커틀랜드에서 그는 그의 다정한 옛 친구인 하이람과 제루샤 스미스와 함께 기거했다. 그곳에서 그는 리디아 골즈웨이트 베일리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그에 못지 않았다.

수 년 전에 리디아의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떠났으며 그녀의 두 자녀도 모두 죽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녀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 캐나다로 보냈다. 1833년 늦은 계절에

그녀는 니커슨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요셉 스미스가 전파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의 얼굴이 “희게 되고 전신에서 빛나는 광채가 발하는 것 같음을 보았다.”³ 이러한 영의 증거로 그녀는 개종하게 되었다. 그후에 그녀는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1835년에 11월 24일에 요셉 스미스는 하이람 스미스의 집에서 뉴웰과 리디아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그 결혼식은 예언자가 집행한 최초의 결혼식이었다.

뉴웰은 리디아를 데리고 미주리로 갔다. 그들은 마침 클레이 군에서 파웨스트로 추방당한 몰몬들과 합세하게 되었다. 1838년

나이트 가족

조셉 나이트
이세는 반
몰몬 폭도들을 피해
꿈꿨던 땅을 맨발로
걸어간 여인과
아이들에 관해
말했다.

요셉 스미스도 파웨스트로 이주하여 왔을 때 뉴웰은 다시 예언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어 기뻐했다.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기나 우유 만큼 필요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괴롭혀온 어려움은 감소되지 않았다. 파웨스트에 있는 나이트 가족은 몇몇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교회를 저버리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중인 뉴웰 나이트는 미주리 스테이크 부장단 전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했다. 이들 가운데는 몰몬경의 증인 중 두 사람인 데이비드와 존 휘트머도 있었다. 올리버 카우드리도 교회로부터 떠났다.⁵ 미주리 주민들은 다시 성도들과 충돌하였으며 1838~39년 겨울에 다시 한번 교회 회원들은 집과 땅을 버리고 피난민이 되었다. 나이트 가족은 미주리를 건너 일리노이로 갔다.

여러 달 후에 나이트와 펙 가족은 나무가 건립 될 장소로 옮겨 갔다. 그들에게도 최소한 11개의 가족 단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네 가족은 조셉 나이트 일세 대의 가족이었고 일곱 가족은 뉴웰 대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커틀랜드와 미주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중성심의 시험을 통과했다. 9년 전

교회로 개종한 이래 그들은 현재 있게 된 곳을 포함하여 아홉 군데나 옮겨 다녔다. (1831년부터 1846년 사이에 나이트 가족은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 아이오와 및 네브라스카에서 열개 이상의 만일성도 정착지를 개척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⁶ 세 목격자나 다른 유명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재산을 잃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를 저버리지 않았다. 미주리주만에서도 가족이 입은 손해의 액수는 16,000불에 달하며 현재까지 500,000불이 넘는다.

일리노이에서 뉴웰 나이트는 예언자가 미주리 감옥에 오랫동안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직후 그를 열렬히 영접했다. 뉴웰은 그때의 만남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가능한한 빨리 그를 보러 갔다. 나는 내가 그토록 오래 진심으로 사랑해온 사람과 손을 맞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의 인간적 가치와 그가 겪은 고난으로 인해 나는 착잡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를 회상하며, 거룩한 부름에 대한 존엄성으로 가득찬 채 내 앞에서 있는 그를 보면서 나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다시는 그와 그의 가족이 이러한 방법으로 헤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다시 한번 나이트 가족은 교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부시 또는 요셉의 도시로 알려진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했다. 뉴웰은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했다. 그와 조셉 나이트 일세는 여러 채의 제분소를 지었다. 예언자가 조셉 나이트 일세에게 지팡이를 주던 무렵 시의회는 나이트 일세에게 땅을 주고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나부의 나이트 스트리트는 나이트 가족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배려를 생각나게 한다.

1842년 1월 어느 날 예언자는 주님의 율법의 책에 그의 성역이 시작된 이래로 그의 곁에서 “충실했던 소수의 순결하고 거룩한 친구들, 충실하고 의롭고 참되며 마음에 낙담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는 조셉 나이트 일세를 포함시켰다. “나의 사랑하는 연로한 형제 조셉 나이트 일세는 내가 주님의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할 무렵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준 최초의 사람 가운데 속한다.…”

15년 동안이나 그는 충실하고 진실했으며 공평하고 모범적이었다. 덕망있고 친절했으며 결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나이트 가족

끝까지 충실했던 나이트 가족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성도들을 위한 새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않았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인의 여생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에 관해서는 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중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임으로 그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언자는 또한 조셉 나이트 일세의 아들들도 기억했다. “뉴웰 나이트와 조셉 나이트의 이름도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록하노니 이는 그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⁸

나부에서 나이트 가족 일행은 또다른 커다란 신앙의 시련에 직면했으며 그것을 통과하였다. 예언자는 성전 의식과 복수 결혼을 위시하여 몇 가지 성전에 관계되는 교리를 소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⁹ 그러나 나이트 가족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성전 공사의 마무리를 도왔으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집행했다. 1846년 초까지 나이트 가족중에서 20명 이상의 성인이 성전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았다. 조셉 나이트 일세와 폴리의 자녀 중 네 명이 복수 결혼을 했다.

요셉과 하이람이 죽었을 때 나이트 가족보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뉴웰은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그는 자신의 슬픔을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기뻐했던가!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고 심장이 무너질 것 같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운명에 순응하며 살든지 죽든지 **살해당한 예언자와 축복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충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에 뒤이어 나이트 가족은



충성심에 대한 또다른 가혹한 시험을 통과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거짓 후계자들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십이사도 정원회를 따르기로 했다. 나무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나훔에 관한 기록은 없으므로, 그는 제외 될 수도 있다.) 도시를 떠나 서부로 향했다.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뉴웰 나이트는 “다시 한번 요셉의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러한 위대한 업적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일단 미시시피강을 건너자 뉴웰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되돌아 보았다. “나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차 있다. 내가 서 있는 언덕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친했던 예언자요 선견자였던 요셉과 축복사인 하이람의 고귀한 업적을 돌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잃었음을 슬퍼한다.” 추방당한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이주하는 도중 뉴웰은 1847년 1월 네브라스카 북부에서 죽었다. 조셉 나이트 일세는 한달 뒤 아이오와에 있는 피스가산에서 죽었다. 그 가족은 교회가 조직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14년째 되는 해까지 복음을 위해 몇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으로 치루어야 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의 13명의 자녀와 그 배우자 가운데 6명이 사망했으며 한 부부는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나머지 17명은 유타에 도착했다.

나이트 가족은 요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에 대해 그들이 목격한 것을 잠잠히 알고만 있지 않았다. 리디아는 그녀의 일대기를 기록했으며 뉴웰은 개인 일지를 작성했다. 조셉 나이트 일세와 이세도 각각 회고록을 썼다. 네 명의 저자 모두가 요셉 스미스를 존경했다.

나이트 가족은 요셉 스미스가 금을 파내고 돌맹이를 들여다 보는 자로 고소를 당하던 때부터 그를 알았었다. 만약 요셉 스미스가 고소자들이 말하듯이 험잡꾼이나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나이트 가족이 그를 것처럼 신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셉에 대한 나이트 가족의 충성심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가 스무살 때부터 서른 여덟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예언자의 성품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요셉 스미스를 비판하는 자들은 그의 동기, 진실성 및 신성한 주장에 의문을 품어 왔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떠한 논쟁이나 토론에서든 충실하고 확고부동한 나이트 가족이 다른 어느 가족보다도 오래 예언자에게 충성했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이트 가족은 요셉 스미스가 본인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인물임을 힘있게 변함없이 간증을 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조셉 나이트 일세에게 준 지팡이는 나이트 가족 중 조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서 또다른 조셉에게로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요셉 스미스와 조셉 나이트 가족이 서로 나누었던 우정에 대한 한가지 기념품인 것이다.*

윌리엄 지 하틀리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역사학 조교수이며 교회 역사를 위한 조셉 필딩 스미스 연구소의 탐구 역사가이다. 그는 샌니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의 샌디 37와드의 감독으로 봉사 중이다.

- 주
1. 클레어 비 크리스찬슨, *피스간산이전파 그후*(솔트레이크시티: 개인 발행 1979년) 79페이지 참조
 2. 에밀리 엠 어스틴, *물론이름 또는 물론들의 생활*(매리슨, 위스콘신: 엠 제이 캔들, 1882년) 72페이지
 3. "홈스편"(리디아 나이트와 수잔 영 게이츠의 필명) *리디아 나이트의 역사*(솔트레이크시티: 청소년 인스트럭터사, 1883년) 18페이지
 4. 리디아 나이트의 역사, 29~31페이지, 교회사 2: 320 참조
 5. 고등 평의회 기록, 도널드 큐 캐논과 먼든 더블류 쿡이 편집한 *파웨스트 기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임 기록, 1830~1844년*(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3년)에 기록된 1837년과 1838년 내용 참조
 6. 여기서 정확한 것은 오하이오주 페인스빌 근처에 정착한 것을 말함; 미주리주클레이튼카 타운쉽과 파웨스트; 일리노이주 나부; 아이오와주 피스가산, 가든그로브, 카운슬 블러프스; 네브라스카 지역의 윈터 퀴티스와 폰카
 7. "배상을 위한 미주리 탄원서" 교회 서고

8. 교회사 5: 107, 124~25
9. 나부에서 소개된 교회는 티 에드가 리온 "일리노이 성도들의 역사적 주요 사건", 제 1회 연례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 심포지움, 1977년 8월 19~22 연설문 및 발표문 발췌 69~71페이지 참조

가계도

조셉 나이트 일세와 그의 아내
폴리팩의 자녀들:
나훔 나이트(탱폴과 결혼)
에스터 나이트(윌리엄 스트링햄과
결혼)
뉴웰 나이트(샬리 콜번, 그리고
리디아 골즈웨이트와 결혼)
안나 나이트(프리본 드밀과 결혼)
조셉 나이트 이세(벤티 코버트,
아멜린 존슨, 아바 웬든 및
매리 울러튼과 결혼)
폴리 나이트(윌리엄 스트링햄과 결혼)
엘리자벳 나이트(조셉 더블류 존슨과
결혼)
조셉 나이트 일세와 후처 페베
크로스비 팩의 자녀들:
헤제카이아 팩(제미마 스무트와 결혼)
사만타 팩(호세아 스타우트와 결혼)
헨리에타 팩(토마스 알 리치와 결혼)
사라 제인 팩(찰스 시 리치와 결혼)
이더 나이트(제인 테리와 결혼)
찰스 시 나이트(어려서 죽음)

복음을 받아들이다로 준비함

복음의 회복과 몰몬경의 출현에 대해 간증한 사람은
요셉 스미스 뿐만은 아니었다.

수잔 이스턴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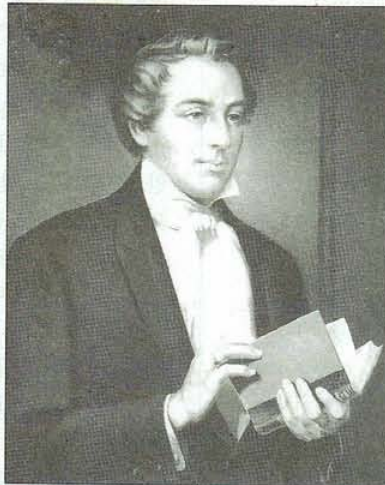
예 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의 첫번째 시현이나
모로나이의 방문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요셉
스미스가 그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한 목사는 “그것을
경멸하면서 매우 노하여 그것은 모든 악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요셉 스미스서 2: 21)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 들었다.
요셉의 식구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실체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류의 구원과 구속을
위한 계획의 더 완전한 지식”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믿었으나 진리에 대해 요셉이 이해한 것만큼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요셉은 이따금씩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는 했다.”
그러나 그는 신성한 시현에 대한 개인적인 증인으로서는 아직도
외로운 처지였다.

1829년 6월에 가서야 비로소 금판과 기타 신성한 물건들이
데이비드 휘트머,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에게 보여져
“하나님의 능력으로”(교성 17:3) 몰몬경에 대해 간증할 다른
증인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루시 맥 스미스는 이 거룩한 일이 있고 나서
요셉이 그녀와 그 부친에게 말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거예요. 주님께서는 나 말고도 세
사람에게 금판을 보여 주셨어요. 그들은
천사를 보았고 천사는 그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들은 내가 말한 진리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큰 짐을 털어낸
듯한 기분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³

1829년 6월부터 1844년 6월까지 요셉 스미스는 많은 사람과
사귀었으며 진리에 대한 간증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들도 그 간증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받은 거룩한 시현에 함께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시드니
리그돈은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한 시현을 요셉과 함께
보았다.(교성 76:22~23 참조)

시드니는 1832년 3월 24일에 폭도들이 요셉을 존슨 농장에서
끌어낼 때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었다. 시드니는 이미 습격을
받아 몸에 타르칠을 하고 깃털이 꽃힌 채 발목을 묶여 잔인하게
끌려 다녔다. 그의 머리는 심하게 찢어졌으며 요셉이 언

함부준 록코이플어벨 음음부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증거를 찾아서
1816년 - 1829년 스미스 생애
1829년 - 1844년 생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많은 피를 흘려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다음날 시드니는 일시적인 착란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증은 그 후로 12년간 굳건히 지켜 졌다.⁴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요셉의 성역과 고통에 참여했다. “나는 나의 모든 형제들이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하고 읍과 같이 성실한, 즉 그리스도의 은유함과 겸손함을 지닌 나의 사랑하는 형 하이람과 같기를 마음 속으로 빌고 있습니다.”⁵하고 요셉은 그의 충실한 형에 대해 기록했다.

시드니와 하이람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과 같았던 진리의 시현을 개인적으로 받은 기쁨을 나누었다. 가장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억되는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요셉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힘껏 외쳐 전하고 있다.

팔마이라의 증인들

다니엘 웰즈는 1820년대에 서부 뉴욕을 휩쓸었던 종교적인 열광을 경험한 초기 성도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종교적인 동요 즉 부흥회가 곳곳에서 열을 올리던 때에 보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것들이 요셉의 마음에 끼친 영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부흥회가 내가 살던 곳의 이웃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물문경을 번역하면서 “책을 전달받을 자 외에 세 사람의 증인이 이를 보며, 저들이 책과 책에 기록된 바가 진실함을 간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니파이서 27:12) 세 사람의 증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물문경의 신성한 기원에 관해 증거하였다. 매리 머슬맨 휘트머는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에게 자신이 어느 날 우유를 짜러 가던 길에 경험했던 일을 들려 주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대는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 왔느니라. 그러나 더 일이 많아져 시련을 겪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 증거를 받아야 하느니라.”⁶ 그리고 나서 천사는 그녀에게 금판을 보여 주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물문경의 출현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816년에, 요셉과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챔벌린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이 세상에는 소수를 제외하고 신앙을 가진 자가 없으며 모든 교회는 부패하였느니라.” 천사는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곧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 교회에는 사도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 당시와 똑같은 권세와 은사가 있을 것이며 [그]가 그 날들을 보게 되고 성경과 같은 책이 출현하여 사람들이 그 책에 의해 인도되리라”고 말해 주었다. 1829년에 에리 운하를 여행하는 도중 그는 영의 감동을 받아 팔마이라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3마일 정도를 걸어 어느 농가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그 집 사람들이 그에게 혹시 “금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솔로몬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기와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⁷

그는 스미스가를 찾아 가서 그가 본 시현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물문경에 관해 말했다. 그들은 이를 동안 그에게 책에 있는 교리를 가르쳤으며 그는 최근 인쇄된 책 중 몇 페이지를 카나다로 가지고 갔다. 그는 그곳에서 “물문이즘에 관해 아는 것을 다 가르쳤다”고 회상했다.⁸

오하이오에서의 증인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처럼 요셉 주변에 모여 들었으며 기쁘게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뉴욕에서 교회에 가입했지만 주님께서 요셉에게 오하이오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집을 버리고 예언자를 따랐다. (교성 37:1) 오하이오에서 복음을

메리 엘리자벳은 아이작 몰리로부터 빌린
물문경을 밤 늦게까지 읽고 그 책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뉴웰과 엘리자벳 휘트니가 있었다. 휘트니 부부는 어느 날 저녁 어떻게 하면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엘리자벳은 그들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구름 속에 집이 덮혀 버렸다. 우리는 마치 집 밖에 있는 것 같았다. 집은 우리의 시현에서 없어져 버렸다. ...엄숙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했다. 우리는 구름을 보았으며 주님의 영을 느꼈다.

“그때 우리는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 오고 있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크게 놀랐으나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커틀랜드로 전해져 음을 느꼈다.””

메리 엘리자벳 롤린스도 예언자 요셉이 전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작 몰리의 집에서 물문경을 보았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너무나도 그 책이 읽고 싶어서 그가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에게 책을 빌려다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너무나도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에 아이작은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다.

메리 엘리자벳과 그녀의 아주머니와 삼촌은 밤늦게까지 물문경을 읽었으며 매리는 책을 계속 읽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다. 약속대로 그녀는 아이작 몰리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책을 돌려 주었다. 그가 매리에게 “많이 못 읽었지”하고 말하자 그녀는 얼마나 읽었는지를 보여 주었으며 첫구절을 암송하면서 니파이의 이야기를 요약해 주기까지 했다. 그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애야, 책을 마저 읽고 가져 오려구나, 내가 기다리지.”” 매리는 모로나이 10장 4절에 약속되어 있는 영의 증거를 받은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다. 요셉은 또 다른 동료 증인을 얻은 것이다.

기록한 나타내심은 계속 되었다. 요셉은 교리와 성약의 내용



1844년 6월 27일 요셉이 카테지에서 죽음을 맞이함
 1845년 4월 13일 그는 윈터 쿼터스에서 아내의 죽음에 관해
 장인 장모인 제임스 콘리와 엘지 콘리에게 이렇게 썼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중 마흔 여섯 편을 커틀랜드에 있는 동안 받았다. 그 가운데는 요셉이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 및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기록도 있다. (교성 110편 참조)

미주리와 일리노이에서의 증인들

요셉과 성도들은 하늘의 사자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던 것만큼 박해도 경험했다. 미주리에서 요셉은 군법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었다. 박해가 극심하여 리버티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고뇌를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오 하나님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교성 121 : 1)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대답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네 백성은...결코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교성 122 : 3)

참으로 요셉 혼자서만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박해를 견디어 냈다. 주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교성 122 : 9)

성도들이 미시시피 강둑에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였을 때 박해는 잠시 중단되었다. 그들은 그곳의 습지를 개간하여 나무를 건설했으며 여러 나라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 들었다. 그 중에는 1843년 말에 자유를 얻은 흑인 여성 제인 엘리자벳 맨닝이 이끄는 흑인 성도 9명으로 구성된 그룹도 있었다. 그녀와 그 친구들은 거의 1,300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 온 것이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신발이 다 닳고 발이 부르터 피가 흐를 때까지 걸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함께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발을 낮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발이 나왔습니다.”¹³

일리노이주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안전의 대피소였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1844년 6월 27일 예언자 요셉이 카테지에서 죽음으로 그의 추종자들은 더욱 심한 박해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태너와 같은 많은

성도들은 충실하게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시드니는 2년도 안되는 사이에 아내와 세 자녀를 잃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1845년 4월 13일 그는 윈터 쿼터스에서 아내의 죽음에 관해 장인 장모인 제임스 콘리와 엘지 콘리에게 이렇게 썼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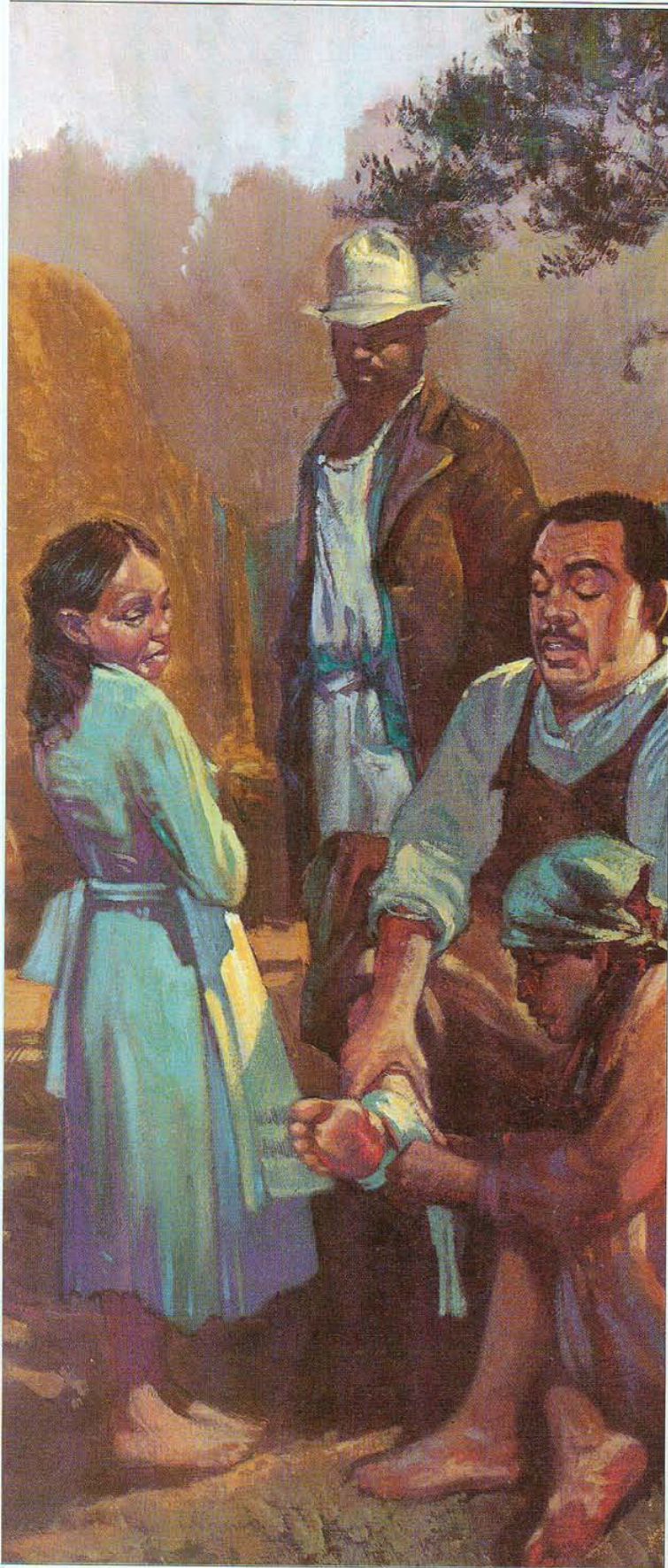
“아내는 저에게 장인 장모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승리했으며 생전에 가장 바랐던 것은 가족과 친구의 복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러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¹⁴

요셉 스미스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회복한 진리에 대해 간증했다. 그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이 말일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 25) 그들이 예언자와 함께 나눈 간증은 그의 예언적인 확신을 성취시켰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¹⁵ 참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

수잔 이스턴 블랙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회 역사 및 교리과의 부교수이다.

주

1. 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역사(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56년) 82~83페이지
2. 같은 책 83페이지



아홉 명의 흑인 성도들은 나무까지
1,300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서
도달했다.

3. 같은 책 152페이지

4. 교회사 1 : 262~265, 1844년 예언자가 사망한 뒤 시드니 리그돈은 누가 요셉의 뒤를 이어 교회의 대관장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브리감 영과 의견이 상충되었다. 8월 8일 모임에서 브리감 영이 예언자 요셉의 음성과 모습으로 변형되어 이야기를 하고난 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의 마음에는 누가 요셉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아무런 의문도 없었다. 시드니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따르지 않기로 했으며 1844년 9월에 파문되었다. 그는 추종자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를 조직하였다. 1845년 봄, 그 교회의 회원들은 그를 대관장으로 선출했다. 1847년 시드니는 계속 지지를 얻으려 했지만 해체되고 말았다. 레오나드 제이 애링턴과 데이비스 비튼 공저 **물론 체험담**(뉴욕 : 빈테이지 출판사, 1979년) 81~90페이지

5. 교회사, 2 : 338

6.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역사, 152페이지

7. 설교집, 12 : 71~72

8. 올슨 프랫과 조셉 에프 스미스가 1878년 9월 17일에 존 테일러에게 보낸 편지, 데저렛 뉴스에 실림, 1878년 11월 27일, 674페이지

9. 솔로몬 챔벌린, 솔로몬 챔벌린의 생애에 대한 요약, 1858년 7월 11일 2~4페이지, 말일성도 교회 서고

10. 같은 책

11. 에드워드 윌코크 툴리지, 물론 여성들(뉴욕, 툴리지와 크랜달, 1877년) 41~43페이지

12. 래비나 필딩 앤더슨, **앤사인**, 1979년 1월, 49페이지

13. 린디 킹 뉴웰과 밸린 티페즈 애버리, **앤사인**, 1979년 8월, 26페이지(이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은 출판되지 않은 원고, 제인 엘리자벳 맨닝 제임스의 자서전"에 있음)

14. 조지 에스 태너, **존 태너와 그의 가족**, (슬트레이크시티 : 존 태너 가족협회 1974년) 234페이지

15. 스미스, 모친이 쓴 **요셉 스미스의 역사**, 150~153페이지

이제부터 마음고생 안하고 그냥 편안
사이좋게 모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정숙교

이 말일성도 화가의 미와 영웅시에
대한 사랑은 서부의 생활, 교회사 및
경전상의 장면을 그린 그녀의 그림에
나타나 있다.

미네르바 테이처트 1947.

미네르바 테이처트 : 예술가

언더우드 핀보로우

베어강 위에 해가 떠 올라 와이오밍 목장에 있는 가축들이 마스함을 느낄 쯤 되면 미네르바 테이처트는 벌써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남편과 다섯 자녀 그리고 몇 명의 목장 일꾼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매일 아침 위생 처리를 하러 낙농장으로 갈 여러 통의 우유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게다가 닭에게 모이도 주고 옷도 세탁, 수선을 하고 발에 김을 매주어야 했다.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그녀는 식사 준비를 두번 더 해야 했고, 1930년대의 목장에서라면 의례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마쳐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네르바의 하루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붓과 파렛트 유화물감이 점점이 찍힌 긴 나무판자를 빼들고 캔버스를 앞에 놓고 잠시 귀중한 순간을 갖기까지는 하루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없었다.

미네르바는 개척자의 영웅적인 모습에 감동되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아메리카 인디안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마음대로 뛰노는 동물들의 모습에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소홀히 대할 수가 없었다. 예언자에 대한 신앙은 그녀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아름다움과 영웅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며 그것은 캔버스 위에 표현하게 되었다. 그녀는 대담한 표현법과 그녀 고유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다.

지난 해에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서는 미네르바 켈헤프 테이처트의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여 그녀의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과거에도 그녀의 그림은 교회 잡지나 교재에 실리기는 했으나 미술가 테이처트 자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잘 파악되지 않았다. 전시회에는 40점 이상의 물론경 벽화,

말일성도 개척자와 미국 서부 정착에 관한 벽화, 소묘, 꽃그림 및 학생 시절의 작품 등이 전시되었다.

미술가의 첫걸음

미네르바 켈헤프가 네 살때 개성이 강하고 창의력있는 여성인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림 물감 한 세트를 주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스스로 미술가로 생각했다. 어린 미네르바는 어느 곳을 가든 도화지와 연필을 갖고 다녔다.

1888년 8월 28일 유타주 노드 옥든에서 태어난 미네르바는 켈헤프 가의 열 명의 자녀 가운데 두번째였다. 그녀는 유년 시절을 대부분 아이다호의 농가에서 보냈다. 켈헤프 가는 재정 형편이 어려웠으며,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로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경전이나 고전 문학을 읽어 주었다.

미네르바는 열네살이 되던 해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유한 아이다호 출신 가족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자리를 얻어 처음으로 집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미술관을 보았으며 마크 홉킨스 미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돌아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했으며 미술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학교에서 가르쳐야 했다.

전문적 훈련

열아홉 살에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가서 존 반더폴의 문하생으로 시카고 미술 학원에서 공부를 하였다. 3년 간의 과정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고향에 돌아가

들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언제나 공부하러 되돌아 왔다. 한번은 미네르바가 반디폴 선생에게 다른 학생들의 작품은 더 형편없는데 왜 자신의 작품에 그토록 심한 비평을 가하느냐고 따졌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 선생님이 연민에 가득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비친 실망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다른 학생들은 비판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결국 학교를 떠나고 말거야. 그러나 네게는 무한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쾨헬프 양 자신의 이야기, 아이다호 포카텔로, 19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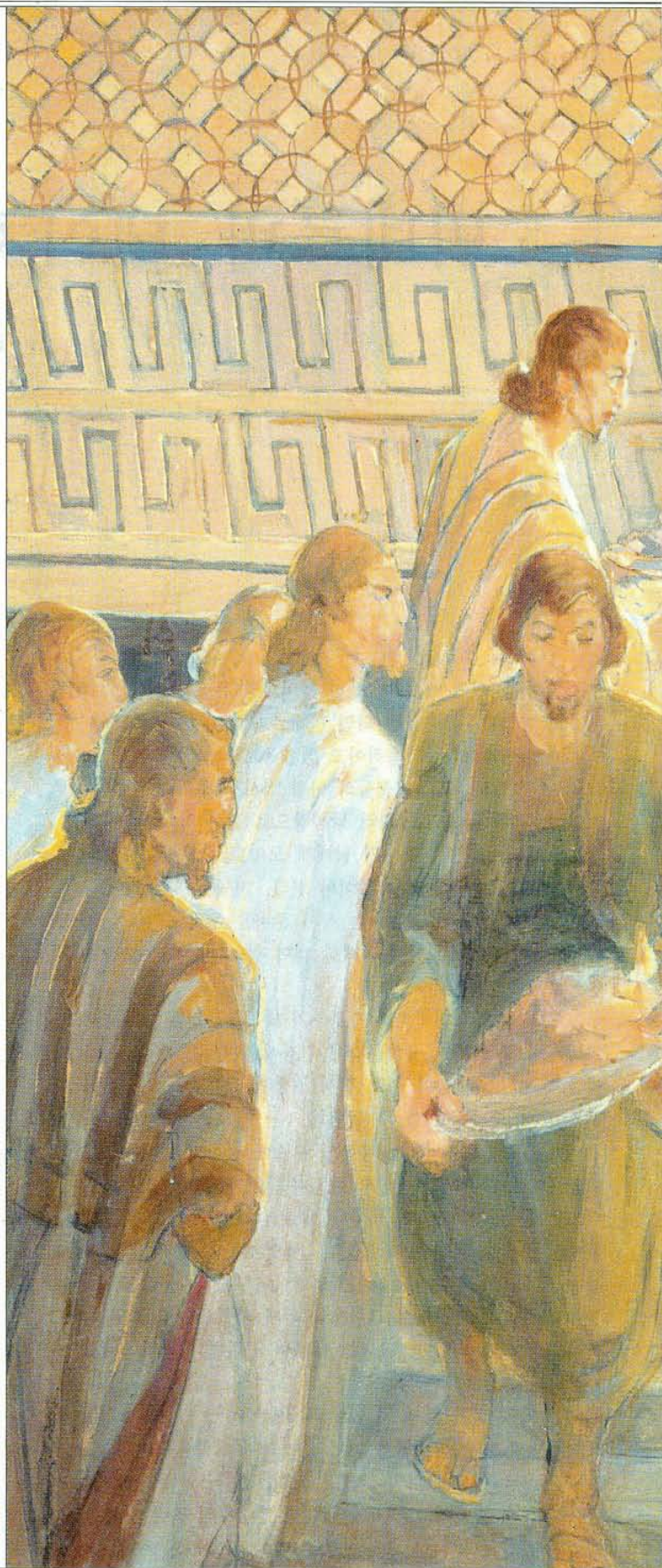
1912년에 그녀는 미술 학원에서의 과정을 마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 왔다. 이때 그녀는 두 명의 청년으로부터 구혼 요청을 받았으나 부유한 한 구혼자는 물론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혼을 취소했다. 다른 청년인 그도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그의 이름은 허만 테이처트였다. (그녀는 말일성도 청년은 아무도 몰랐다.) 허만은 점잖은 카우보이로 달밤에 야생마를 쫓는 활동을 즐겨했다. 그러나 1915년 4월 그녀는 허만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뉴욕시에 있는 미술학생 연맹을 찾아 갔다.

그 당시 그 연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센터 중 하나였다. 미네르바는 의대에서 해부용 시체를 그림으로 그려 주거나 밧줄 묘기나 인디안 춤을 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며 수업료를 지불했다.

두 가지 중요한 결정

그녀의 생애에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미네르바는 미술 세계로부터 떠나야 했던 두 가지 일을 경험했다. 첫번째 경험은

“성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미네르바가 그린 많은 물론경 그림 중의 한 작품.





가족과 함께, 특히 허만과 함께 하는 가정 생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 간증 시간에 그녀는 결혼 생활과 어머니로서의 기쁨에 대해 말하는 어느 자매의 간증을 들었다. 미네르바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올바는 사람’을 찾기 위해 내가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때 그녀는 “아이다호 황무지에서 가족을 먹이고 송아지에 낙인을 찍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운 의미를 주었다.”(출판되지 않은 자서전적 스케치, 1937년)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미네르바는 아이다호의 집으로 돌아와 허만과 결혼하였다.

다른 한 가지 경험은 미술가로서의 그의 사명과 그녀의 재능을 신앙을 위해 봉사하는데 바쳐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었다. 미네르바는 후에 그녀를 지도했던 교사 중 한 사람인 로버트 헨리가, 그녀가 뉴욕을 떠나기 직전에 그녀에게 “위대한 물문의 이야기”를 그린 미술가가 있었느냐고 질문한 것을 기억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린 사람은 없었지요.”하고 나는 대답했다. ‘잘됐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미네르바가 그 일을 해.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미네르바야. 그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인지도 몰라. 미네르바는 잘 해 낼거야.’”

“나는 사명을 위임받은 것처럼 느꼈다.”(출판되지 않은 원고, 19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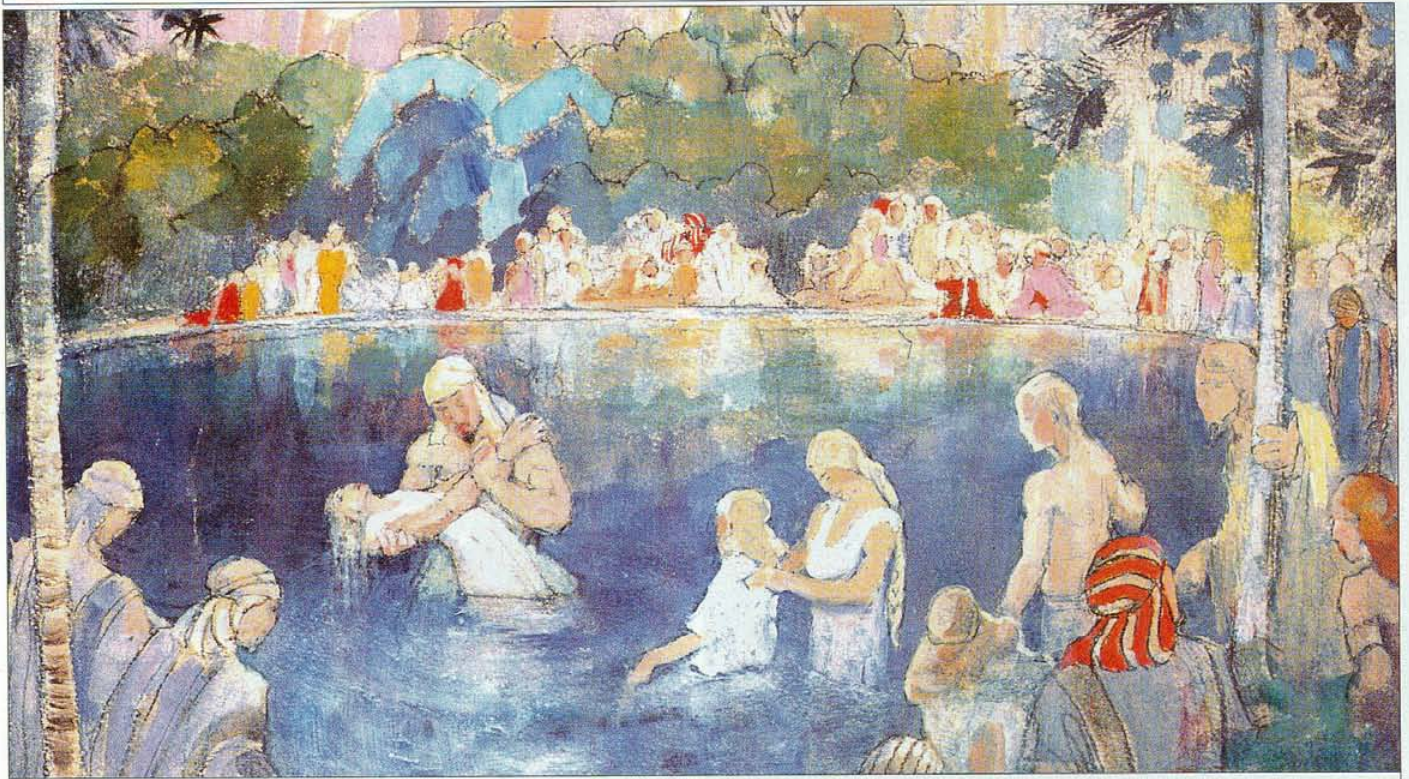
미네르바 테이처트는 두 가지 소명 즉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예술을 통해 그녀의 백성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라는 것에 부응하여 남은 여생과 넘치는 생명력을 바쳤다.

허만이 1차 대전중 불란서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그는 미네르바와 함께 아이다호에 있는 옛 테이처트 농가로 이주했다. 미네르바는 이곳을 사랑했으나 새로운 저수지 건설로 그 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와이오밍주 코크빌에 있는 목장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미네르바는 그들의 새로운 집 거실에 옛 집 주변에 있는 아이다호 농촌 풍경을 그렸다.





굵은 붓을 사용한 강한 기법으로 미네르바는 서부 생활의 소박한 미를 표현했다. 세 장면들은 각각, "순수해 개척자들", "갈매기와 소녀" 그리고 "집 브리저와 베이레이크"이다. 활발한 탐험가이며 개척자인 브리저는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과 주변 지역을 설명해준 최초의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40년 이상이나 이 방은 미네르바의 화실이 되었으며 테이처트 가족의 생활 중심지가 되었다. 그녀는 나무를 때는 난로에서 요리를 하면서 요리 도중에도 간간히 그림을 그렸다. 매일 저녁, 가족이 저녁을 먹는 동안 그녀는 그들에게 문학, 역사 및 경전을 읽어 주었다.

그 거실에서 그녀는 수많은 벽화와 인물화 및 기타 작품을 그리면서 강하고 원색적인 스타일을 개발해 냈다. 그림을 그릴만한 여건이 이상적이지 못했다. 방은 커다란 벽화를 펼치기에는 너무 작았다. 때로는 캔버스를 접어 가며 그릴 때도 있었다. 벽화를 멀리서 보기 위해 그녀는 쌍안경의 일부를 떼어 그것으로 보기도 했다. 방해물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쨌든 미네르바는 고집했다. “나는 그려야 해.”(출판되지 않은 원고, 1947년)

주님께 의지함

미네르바의 영적인 생활은 꿈과 주님께 의지하는 능력에 의해 인도되었다. 젊은 어머니가 된 그녀는 위대한 교사인 로버트 헨리와 함께 영국 런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곧 태어날 딸에 대한 꿈으로 포기해 버렸다. 테이처트 집안의 유일한 딸인 로리는 이듬해 쬐에 태어났다. 같은 방법으로 미네르바는 실제로 만나 보기도 전에 꿈에서 장래에 며느리가 될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은연중에 믿었으며 그녀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주님의 인도에 의지하기를 가르쳤다.

그녀의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는 1933년에

남편이 침례받은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교회 활동 참여를 도와 주었으며 여러해 동안 십일조를 바쳐 왔다. 미네르바와 허만은 후에 로간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미술에 있어서 미네르바 테이처트는 두 가지 훌륭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한 가지는 물론경 벽화 시리즈를 완성한 것이었다. 교회에서 그 완성품 시리즈를 출판하도록 하는 것이 그녀는 미술가로서의 궁극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출판에 아무도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한 그녀는 실망하여 결국 모든 작품을 브리감 영 대학교에 기증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물론경 벽화의 출판 거부로 인생에서 큰 실망을 겪었다면 맨타이 성전 현세의 방에 벽화를 그리도록 위임받음으로써 큰 만족을 느꼈다. 1947년 59세의 나이로 미네르바 테이처트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상상할 수 없는 활력으로 수 개월 만에 벽화를 완성하였다.

1976년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네르바 테이처트는 아마도 천여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 냈을 것이다. “영원은 나에게 사실처럼 보여진다.”고 그녀는 1937년에 기록했다. 그런 다음 영원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아홉번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는 다함이 없을 것이며 한번의 인생은 다음의 삶을 위한 짧은 학교 생활과 같은 뿐일 것이다.” *

켄 언더우드 핀보로우, 자유 기고가, 솔트레이크시티 힐사이드 스테이크 에이저럴 2와드 내에 거주하고 있음.

나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내가 선교사 토론에 귀를 기울인 것은 단지 친구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 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참석하던 교회의 목사와 이야기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와 그의 부인은 나에게 잘 대해 주었으며 나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했었다.

나는 외투를 입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분이라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거야.” 집을 나서려 할 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나는 지체없이 기도를 하기로 했다.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무릎 꿇은 뒤 하나님 아버지께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해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나는 또한 선교사가 내게 말해준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기도를 마친 뒤에 나는 일어서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또다른 강한 느낌이 왔다. 그것은 목사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응답은 때가 되면 주어지리라는 것을 느꼈다. 믿을만한 응답이 필요하다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외투를 벗은 뒤 일상적인 아침 일을 했다.

때가 되어 응답은 왔다. 나의 내부에서 불타는 듯한 느낌이 복음의 진실함에 대해 간증해 주었다.

침례를 받고 몇 주가 지난 뒤 나는 예전의 목사를 찾아가 내가 경험한 것을 그에게 말했다. 편견을 갖고 있는 그의 견해를 예의 바른 태도로 들으면서 나는 수 개월전에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 헤인즈 자매는 매그랏 알버타(캐나다) 스테이크, 레이몬드 제1워드의 회원이다.

응답

딘 이 헤인즈



다리는 잃었으나 마음은 잃지 않은 그 사람

버디 스트롱

우리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피에이(P.A.)로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으로 생각나는 것은 푸르고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작업복에 잘 다려진 흰 셔츠를 입고 정원에서 김을 메고 있던 때였다.

할아버지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축복을 받았으며 재능있는 조각가였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이러스 이델린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에게서 보스턴으로 와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라는 권유를 받았었다. 할아버지는 델린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었으나 한편 그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기차에서 화부로 일을 해야 했다.

한개긴 어느 날 시간표가 중복되어 두 대의 열차가 충돌을 했다. 할아버지는 두 대의 열차 엔진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수증기가 새어 나와 그는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그의 왼쪽 다리가 부서진 열차 사이에 끼여 일부가 절단된 것을 보고는 자신이 갖고 있던 주머니칼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어 그곳에서 빠져 나왔다. 상처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다. 충실한 신권 소유자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가 멈추도록 명령했다. 절단된 부분이 하얗게 되면서 출혈이 멈춰졌다.

후에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의 다른 쪽 다리의 무릎 아래를 절단하였다. 오랜 회복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다른 환자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데 보냈다.

사고가 있는 뒤 할아버지는 석탄 공급 회사를 대표하여 인근의 여러 주를 여행하면서 주문을 받거나 수금을 했다. 많은 자동차 편승 여행자들이 할아버지의 차를 다면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점심과 인생 철학도 나누어 주었다.

때로 할아버지는 관대한 성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번은 편승 여행자가 총을 꺼내들고 강탈을 하려 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지갑에 이것 밖에 돈이 없오. 꺼내 가시오.”

분명히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석탄 회사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수천 달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동차 안의 숨길만한 모든 장소를 다 찾아 보았으나 그가 찾아낸 것은 할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5달러짜리 지폐 뿐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실망한 강도를 내려준 뒤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운전을 했다. 그의 인조 다리 안에는 수금한 일만 달러가 숨겨져 있었다.

후에 할아버지는 노상 카페의 주인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는 마을에 있는 미망인들에게 연탄과 식료품을 보내 주었다. 할아버지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 보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사람은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부부가 다섯 명의 자녀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 왔다. 얼어 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었다.

그 가족은 다른 주에 직장을 약속받아 가는 중이었다. 그들의 차가 고장이 나서 눈 길 속을 걸어 수 킬로미터나 온 것이었다. 할머니가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주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 가족의 아버지를 태우고 마을로 가서 가족 모두를 위해 겨울 옷을 사왔다. 그리고 차를 견인해다 수리한 비용도 지불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이 떠날 준비를 할 때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손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을 쥐어 주었다. 그 사람은 울면서 할아버지를 껴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할아버지를 축복해 주셨다. 젊어서 양쪽 다리를 잃은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염려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중에 자신에 관한 것은 잊어버린 것이다.

버디 스트롱은 어느 연구소의 관리 차장이며 오렘 유타 세븐 사우드 스테이크의 오렘 12와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매일의 용기

론 우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각오가 필요하다.

16 66년 봄에 흑사병이 더비셔에 있는 이암 마을에 두번째로 전염되었다. 몇년전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주민들은 공포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몸페슨이 그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부탁했다. “이암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더비셔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의 권고를 들었던 것으로 보아 그 목사는 설득력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마을 주위에는 경계 표시로 돌을 둥글게 늘어 놓았으며 접촉을 꺼리는 외부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그 경계 구역 근처에 놓아 두었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공포의 질병은 많은 인명을 앓아 갔다. 재앙이 지나간 뒤 350명의 충실한 주민들 가운데서 목사의 부인을 위시하여 259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전염병은 더 퍼지지 않아 나머지 더비셔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 × ×

1943년 2월에 연합군 수송선 도체스티호가 북대서양에서 어뢰의 공격을 받았다. 배가 침몰될 때 네 명의 군목-천주교인 한 명, 유대인 한 명, 신교도 두 명-이 갑판에 서서 구명 벨트를 건네 주고 있었다. 구명 벨트가 다 떨어져 버리자 그들은 자신의 것을 주어 버렸다. 네 명의 군목이 보여준 마지막 장면은 팔에 팔을 잡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 × ×

창문도 없이 책과 논문지로 쌓여있는 방은 전형적인 교수의 사무실 같았다. 그러나 브리감 영 대학교의 불어 교수인 존 에이 그린은 결코 평범한 교수로 볼 수 없다. 1981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는 뇌일혈로 불어와 영어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그의 몸은 마비가 되었다. 가르칠 수 없게 된 그는 결코 대학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없을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존 그린은 비범한 사람이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읽고 견고 말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몇달 후에 그는 사무실에 다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는 노트를 살펴보고 검토하고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린 형제는 불란서 작가인 마르셀 슈에 대한 여러 권의 연구서를 완성하였다. 일곱 권으로 계획된 내용 가운데 일부인 두 권은 이미 인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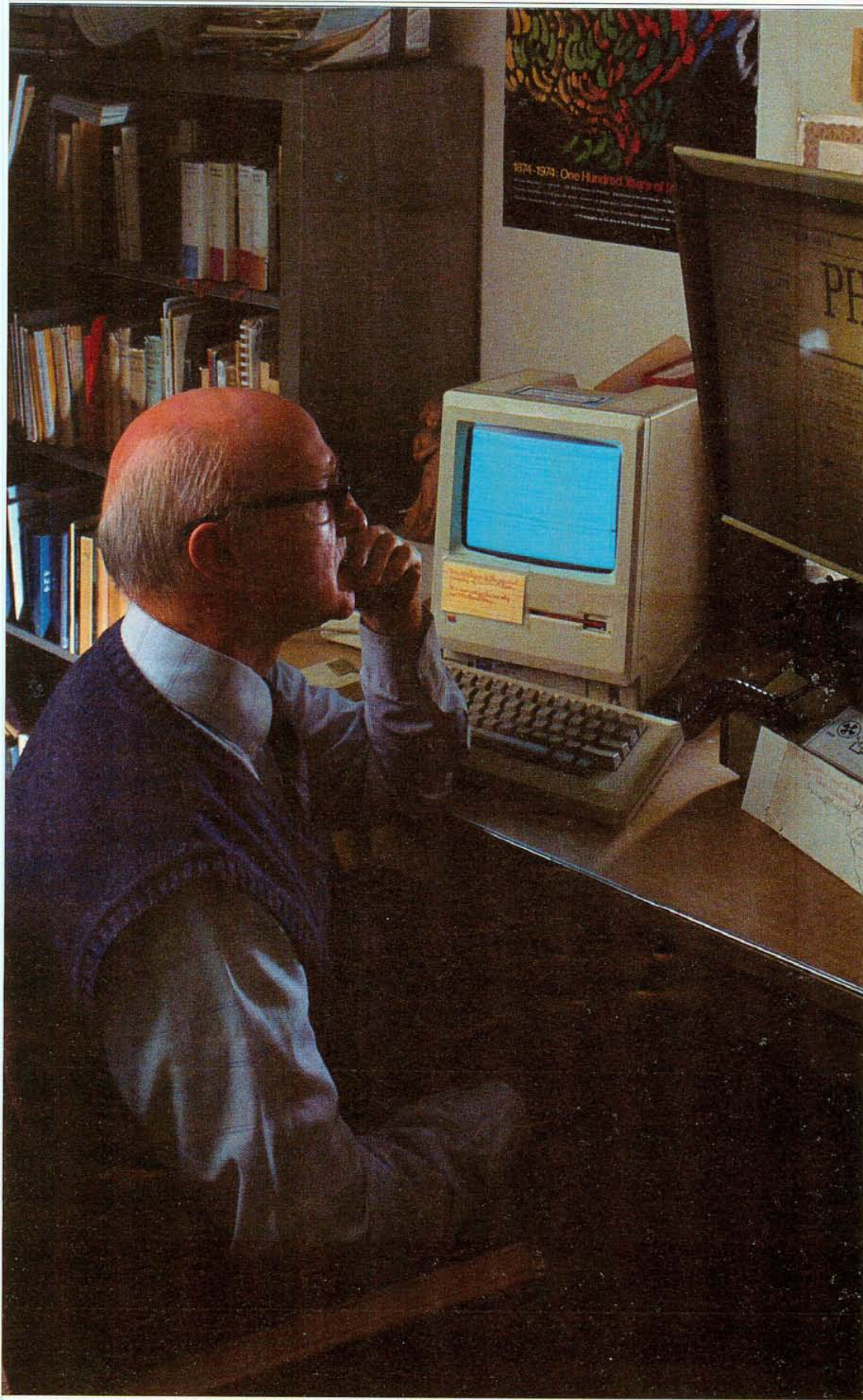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그린 교수가 그의 왼손 중 한 손가락으로 이 책들의 단어 하나 하나를 모두 타자로 쳤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오전 여덟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그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그가 시도한 일을 한다. 그는 집에서 쉬고 있다면 아직도 받고 있을 불구 수당 이외에 아무런 보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기의 표시

이상의 세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이다. 그것은 좀더 편하고, 자신을 위하게 되며,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다하고 힘들게 결정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용기이다.

우리는 누구나 용기를 내고 결심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198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을 맛보게 되고, 조롱도 받을 것이며, 반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용기는 브리감 영 대학 교수인 존 스너더가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이다. 뇌일혈로 불구가 됐으며 기억까지 상실했던 그는 사용할 수 있는 한 손가락으로 힘들여 타자하여 두 권의 책을 완성하였다.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 원리를 고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의 승인의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용기가 남자답게 죽는 자발성 만이 아니라 품위있게 생활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간주될 때 그것 자체가 생활이 되고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비겁자란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두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품위를 가지고 두려움을 받아 들이는 사람은 용기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기는 중요함", 성도의 빛, 1987년 1월, 53페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용기란 군인들이나 또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팀 혹은 갈라진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잡고 가파른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는 등산가가 보여 주는 용기가 아니다. 물론 그러한

John Snyder

타히티는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 타히티는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 타히티는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 타히티는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

모든 행동에 큰 용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음 안에서 불리우는 용기란 대개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대로 하지 않고 올바른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진리에 따라 생활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거부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심은 단호하고 과감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반면 조용하고 나서지 않고 겸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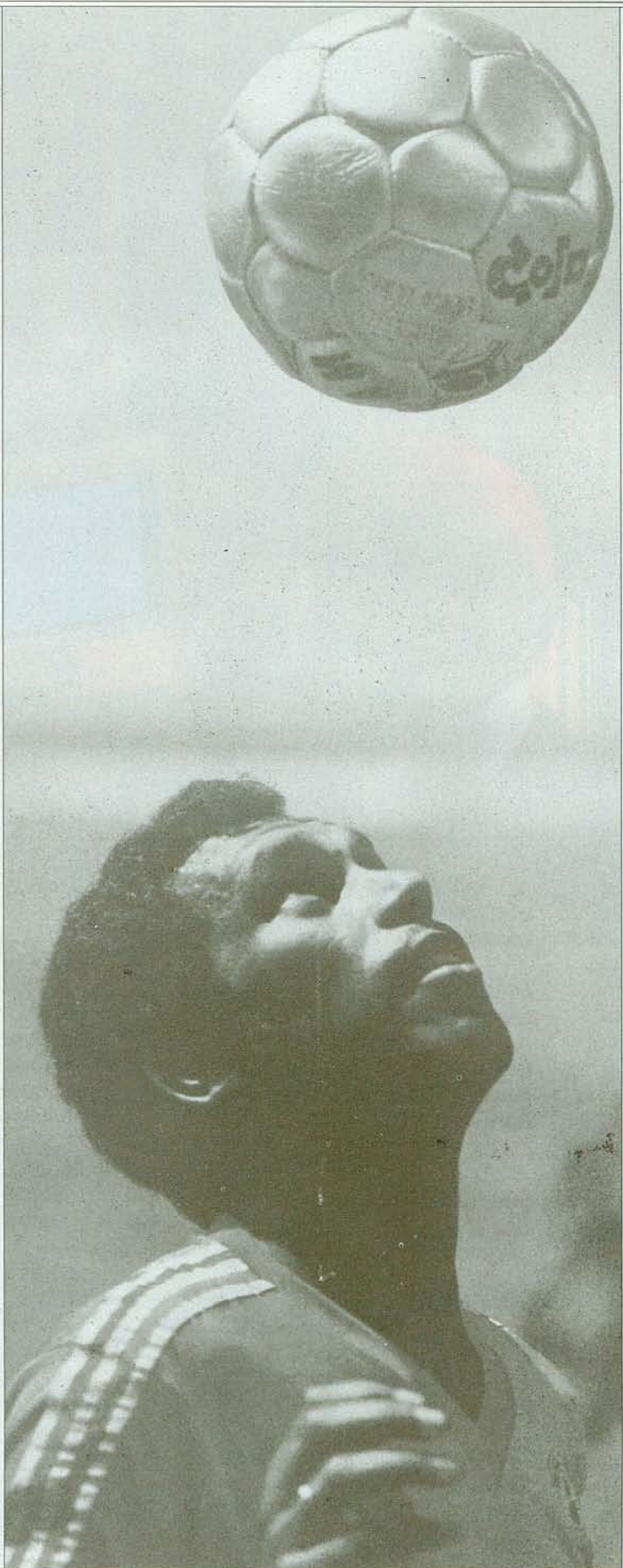
타히티 원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감독인 에를 베네트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용기와 결심이 굳은 말일성도이다. 스물 일곱살때 타히티에서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였던 에롤은 당시 교회를 알게 되어 가족과 스포츠 관계자들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침례를 받았다.

축구는 타히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운동이며 에롤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 나라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는 모두 일요일에 있었다. 일요일의 경기로 인해 베네트 형제는 교회에 가입하여 일요일을 교회 활동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전성기였던 축구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일요일에 침례를 받은 뒤 베네트 형제는 경기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일주일 내에 그의 위치를 사임할 준비를 하였다.

며칠 후, 에를 베네트가 그의 결심을 분명히 밝히자 협회는 모임을 갖고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갖는 오랜 전통은 결국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 두 개의 상위 클럽은 경기를 주말로 옮기기로 했다. ("에를 베네트, 타히티의 축구 스타" 마이클 오티슨, 성도의 빛, 1983년 5월호 참조)

아무런 도덕적인 확신이 없어도 유명한 영웅이 태어나는

아무런 도덕적인 확신이 없어도 유명한 영웅이 태어나는 세상에서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기 위해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려 했던 에를 베네트에 관해 듣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세상에서 에를 베네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부모와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의 하나는 청소년에게 진리에 따라 생활하고 악을 거부하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므로 용기있는 모범이 필요하다. 나는 아들 매튜가 열두 살이었을 때 그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마약 복용으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망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에를 베네트와 같은 사람에 관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친구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술, 담배 또는 마약 복용을 거부하는 용기를 지녔던 말일성도의 귀중한 이야기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지만 우리는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에 의해 아리조나 대처를 떠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의 생애에서도 일어났었다. 킴블 장로는 사업상이나 교회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함께 가졌던 과거의 일 중에서 미해결된 것이 있는지를 알아내려 했다. 만일 누구라도 그가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런 논쟁도 벌이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에드워드 엘 킴블 및 앤드루 이 킴블 이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7년 197~98페이지)

매일의 과제

세상은 우리에게 다수의 균형을 따라 가도록 유혹할 때가 많다. 그러나 매일의 생활은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우리의 행동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복음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 표준에 얼마나 가까운가?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봉사의 수준은

어떠한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한 것은 어떠한가?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생각과 끊임없는 각오를 요구한다. 우리가 용기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는 달리 두번 다시 내리게 되지 않을 큰 결정을 내리는 문제로 고심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일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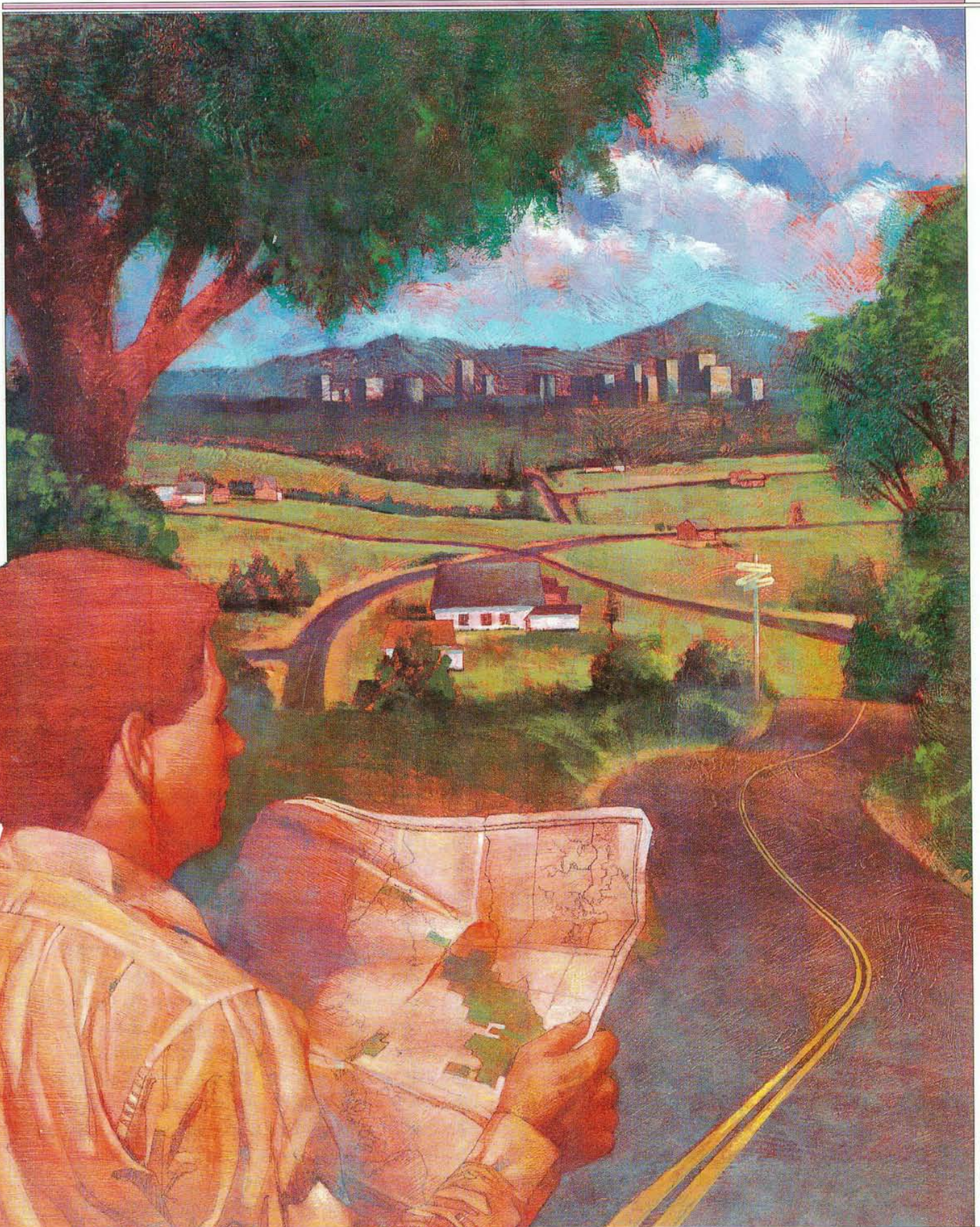
시험은 “나의 생명 벨트를 내어 줄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이웃을 형제처럼—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대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용기있는 결정은 늘 쉬운 것만은 아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인생이란 장애물이나 함정이나 올가미가 하나도 없는 고속 도로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래길과 진환짐이 나 있는 오솔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와 예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용기는 중요함” 성도의 벗, 1987년 1월, 52페이지)

이암 마을의 주민들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부탁을 받든, 존 그린과 같이 어려움에 당면해서도 매일 최선의 노력을 하든,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없이 의로운 것을 고수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에를 베네트와 새로 부름받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처럼 원리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복음대로 용기있게 생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며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더욱 효율적인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 *

론 우즈는 브리감 영 대학교 인문 대학에서 행정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Mitchell W. Heinze

나의 독신 친구들에게



한길을 가리키는 어떠한 지도라도 말일성도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들은
모든 사람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테이크 부장이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와 권고를 구했습니다. 그녀를 헬렌이라 합시다. 그녀는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책을 읽었으며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우리 스테이크나 고장에서 결혼을 할만한 특별한 정을 나눈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선의의 친구들로부터 그녀의 지식과 강한 개성에 대해 많은 남성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충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좀더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남성들에게 위압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보도록 제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직분에 대한 제의를 미국 동부의 어느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제언에 관해 나의 의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헬렌에게 계속해서 평소와 같이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결국 그녀가 결혼하게 될 사람과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결정을 그녀가 내려야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기회에 나는 영적인 면에서 호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충고 했습니다.

헬렌은 새로운 직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동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와 사회를 위해 훌륭하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독신 성인의 인생이 헬렌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회원중 성인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독신 성인을 일반적으로 추출해 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 접견이 아닌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려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독신 성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문제점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일반적인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해하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따라 가십시오.

상당히 많은 수의 영원한 결혼의 반려자들은 대학에서, 와드 및 스테이크 활동에서 직장 생활 등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습니다. 이 회원들에게는 198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판장이 주신 충고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는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결혼에 대한 결정을 너무 늦게까지 미루지 않도록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선한 일에 참여하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권고했습니다. (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그러나 이미 이십대 후반, 삼십대, 사십대 또는 그 이상이 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반려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려움은 늘 잘 정돈된 해답과 함께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전해 주는 승인된 프로그램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충고나 비판 혹은 해결책보다는 기도하는 생활과 성전 참여, 봉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의 일부로서 여러분 자신의 영감과 육감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적인 결정을 강요하거나 중매 사업 또는 조직을 갖는 것은 교회의 기본 사명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훌륭한 환경은 여러분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및 경험

나의 친구들 중에는 여러해 동안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조그만 독신 성인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비 공식적인 독신 성인 활동을 통해 결혼을 한 나는 독신 성인에 대해 늘 진지한 관심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는 동안 실로 수많은 독신 성인들이 중요하고 값진 일을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들과의 훌륭한 교제로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테이크와 지역의 특별 이해반 및 청년 특별 이해반 그룹 그리고 기타 독신 성인의 다른 그룹의 고문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과 교회의 독신 성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독신 성인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은 다른 유익한 활동과 목표에 참여한 결과로써 이루어 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결혼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캠페인에 의하기보다는 충실하게 생활해 나가는 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구세주께서 베푸신 성역에 관한 기록에는 결혼에 관한 직접적인 충고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권고는 결혼에 관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으로 인도했으나 원리는 모두 적용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사람이 받은 재능을 키우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훌륭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재능을 감추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쓰디쓴 결실을 거두리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결혼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삶은 풍요롭고 자극적이고 흥미있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있음이니”(교성 58 : 27~28)

여러분이 이 생에서 결혼 반려자를 찾았든 찾지 못했던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선한 일에 참여하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결혼을 해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은 그 목적에 직접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의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7 : 7참조) 그 결과 우리는 받고, 찾고, 문이 열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삶에 대한 영원한 견해를 가지십시오.

두번째로 중요한 점은 삶에 대한 영적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내가 온전히 알리로다”(고린도전서 13 : 12)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린도전서 15 : 19)

인간이 지닌 유한한 견해로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비참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완전히 공평한 것을 찾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근시안적이고 순간적인 견해로 본다면 노하거나 쓰디쓴 감정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감과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 예로 엘마서 42장 참조) 우리는 매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긴 안목으로만 우리는 공의와 의로움과 공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을 덧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시고 그렇게 생활할 때 견디어 낼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의 회원들이 성취되지 않은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언젠가 축복사의 축복은 영원한 문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



선행과 교육, 개인적인 발전에 참여하십시오.

출판사, 1974년 305~7페이지 참조) 축복문에 있는 어떤 내용이나, 약속중에서는 다음 세대에서 성취될 것이 많습니다. 삶이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서 갖가지 소중한 기쁜 것들이 더 훌륭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독신 남성보다 독신 여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할 기회에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결혼에 까지 이르는 특별한 우정을 맺는 기회를 종종 갖게 됩니다.

3. 사랑하고 인내하는 현실적인 성품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모범적인 신권 지도자나 여러분이 이상으로 삼는 훌륭한 여성과 같은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어딘가 시발점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배우자에게서 바라는 이상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갖춘 많은 훌륭한 자질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훌륭한 자질을 많은 유능한 말일성도 독신들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존경받는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부인인

카밀라 김볼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예언자와 같은 사람과 결혼한 소감이 어떠한지를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언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귀환 선교사와 결혼했을 뿐입니다.’”(에드워드 엘 김볼, 편집자,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의 글,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트 출판사, 1988년 114페이지)

사람의 내부에 들어 있는 잠재력을 알아 내어 그들이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동반자가 여러분을 위해 해 주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을 때 데이트 상대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변한 것을 알았으며 그의 잠재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바뀌어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게 어떤 것들이 절대 필요한 것이며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는 문제에 관해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은 교향곡을 좋아하는데 그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그가 고전 작곡가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와 함께 그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때로 인간과 인간관계로 인해 여러분이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쾌활하며 마음을 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처를 극복하기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며, 그러한 고통을 다시 겪게 되거나 앓을까 두려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은 즉,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는 것은 자신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기도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누군가 올바른 사람을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훌륭한 결혼 생활은 그러 해야 합니다.

소중한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하여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 후회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나 그가 상충되는 어떤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다 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과거를 돌이켜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4.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내가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한 친구중에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름답고 교양있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와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신앙과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것은 큰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훌륭한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훌륭한 경험을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 신권 의식 또는 가족의 경험도 그분에게서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전쟁 중에 또는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양식이 마련되어 그들은 반드시 복음의 모든 열매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도록 훌륭한 동기를 갖고 계속 활동하십시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십시오.

5.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하고 자기를 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떻게 생각되는가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은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는 아직 욕과 같지는 아니하니”(교성 121:10) 이것은 영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는 세 편은 요셉이 감옥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분명 그는 감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좋은 성품을 지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별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여러분에 대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독신으로 있는 이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여러분의 잘못을 가상해서 들추어 내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의견들을 받아들여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일을 계속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자신에 관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균형이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우정과 사랑, 목표와 방향, 인내와 자제 훌륭한 도움의 근원(가족, 친구 및 교회 지도자), 복음의 표준에 대한 순종, 사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헌신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축복, 재능 및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함께 일하던 선교사들에게 조금 일찍 일어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훌륭한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흔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을 훌륭하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축복이 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을 영위합니다.

6. 자부심을 키우고 유지함

독신 성인들의 생활에서는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성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 친구와 친지의 분별없는 행동, 우리가

몸에 익힌 습관 등 모든 것이 이 문제에 있어 원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는 전문적인 지도와 지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독신 성인은 특히 자립하고 건전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한다면, 영감과 계시로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생활할 때 강한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간증은 마음의 평화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식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라는 것과 따라서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며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지니게 하신 위대한 원리를 가르쳤으며 우리가 겸손하여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약점을 보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그러한 약점을 극복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더서 12:27 참조) 이것이 참으로 겸허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심각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찾음

교회에서 독신 성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제안한 것 중에서 유용한 내용이나 이 생에서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성 및 여성 독신 성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자를 찾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영적인 안목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여러분이 승영에 필요한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성전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최초의 목표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건전하고 균형있는 생활의 부산물로 올 수 있게 하십시오. 선행과 교육, 개인적인 발전에 참여하십시오. 건전한 자부심을 키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을 찾고 결국은 합당한 동반자와 영원히 함께 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영원함

목적 : 자매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약과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움

18 45~46년의 겨울은 나무에 있는 성도들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떠나야 했다. 그러나 성전 마무리 공사와 성전 의식은 마차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는 일과 더불어 계속되었다.

1846년 2월 3일,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운집한 성도들에게 성전이 그 목적을 수행했음을 확신시키며 짐을 꾸려 나무를 떠날 것을 제안했다. 영 대관장은 성전을 떠났으며 얼마 정도 걸어진 뒤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그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니파이인들 가운데 계셨던 구세주께서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는 무리에게 동정심을 가지셨듯이 영 대관장은 다시 돌아갔다. 그는 성전이 사람으로 가득찬 것을 보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295명의 성도들이 성전 의식을 받았다. (교회사, 7: 579)

성전 의식을 위시한 복음의 의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의 뜻을 행하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맺고 그러한 성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주님의 힘을 받게 된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므로써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게 하고 커다란 축복을 받는다.

성전 의식만이 구원에 필요한 의식은 아니다. 침례 또한

필수적인 의식이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게 된다. 또다른 중요한 의식은 확인으로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고 위안과 영감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 구원의 복음의 의식을 받을 책임이 있다. 합당한 모든 자매는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다우먼트의 축복도 적절한 판단과 성숙함을 갖춘 연령에 이른 모든 합당한 자매에게 주어질 수 있다.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성약과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의 의식과 성약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 온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로마서 8: 14~17 참조)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이 참여했거나 목격한 침례 또는 성전 결혼 등에 관한 여러분의 느낌을 방문한 자매에게 이야기한다.
2. 방문한 자매에게 스스로 복음의 의식의 축복을 받거나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미래에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한다. 그녀가 이러한 의식들을 이미 받았다면 그녀에게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격려한다.

청소년과 함께 나눔

봉사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영을 지니게 되면 봉사하기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주님의 영을 구함”, 성도의 벗 1988년 9월호)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 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사서 2:17)

“이 생에서 가장 값진 부름은 인간이 그의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부름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연차 대회, 1961년 4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연차 대회, 1935년 4월)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인즉,”(모로나이서 7:13)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고서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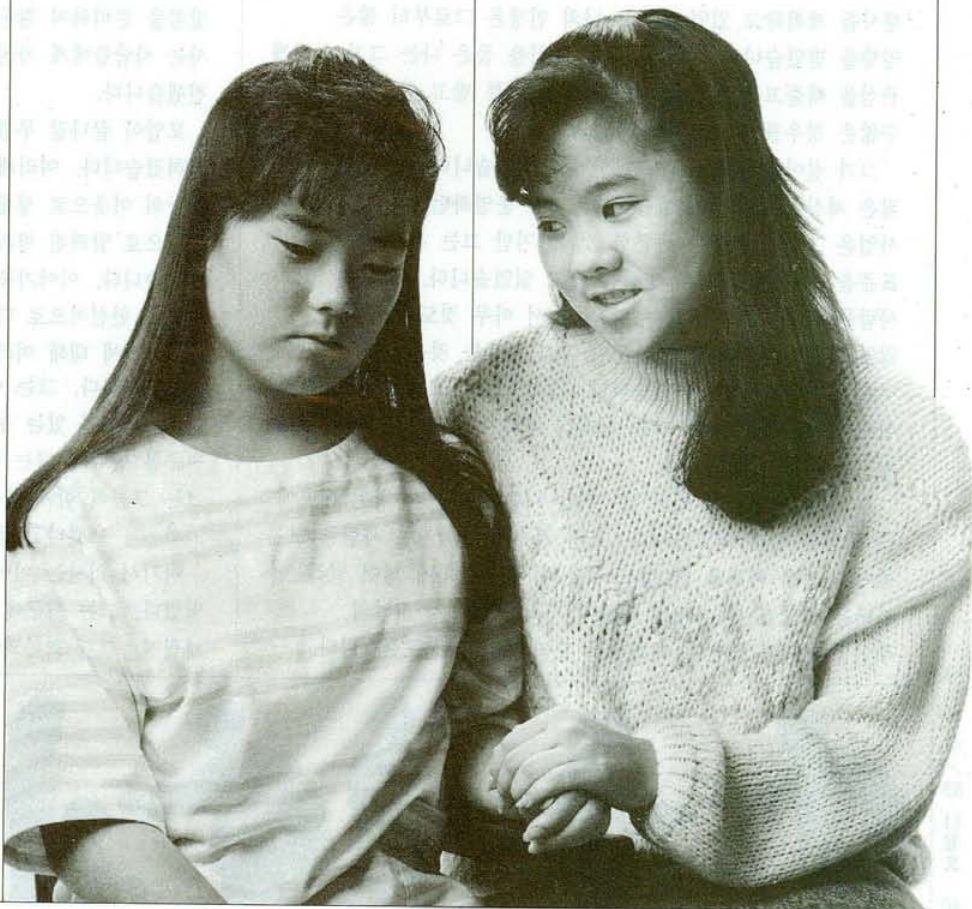
행복한 것입니다.” 고든비 힝클리 부대관장 (“우리를 바쳐 주를 섬기고”, 성도의 벗 1987년 8월호)

“인간이 성결케 될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방법은 헌신적인 봉사에 있습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연차 대회, 1987년 10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연차 대회, 1984년 10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저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딘 엘 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몇 년 전에 나는 전에 내가 살았던 적이 있는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특별 감사 모임에 관한 편지를 받았습니 다. 그와 그의 아내는 그때까지 살아온 지역을 떠나려는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지역 사회를 위해 행한 봉사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그를 위한 특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나는 그가 나에게 관심을 베풀고 친절을 보여 유익과 격려를 받고 인도를 받은 수많은 경우를 생각하기에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지역은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조그마한 사업은 그의 생활에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생활 표준을 높이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으나 그들에게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가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 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던들 그는 장례식 때까지 공적으로 치하를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특별한 행사가 있던 날 저녁, 나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 종이 쪽지에 서명을 한 뒤 그것을 접어서 상자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리를 메우자 그날의 주인공이 단상에 앉고 대회장은 모임 진행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에는 아무 연사도 지명되지 않았다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자에서 이름을 뽑아내 발표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의 친구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도록 부탁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씩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리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연사들은 우리의 친구가 그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봉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상자에서 그 지역의 어느 의사의 이름이 뽑혀졌습니다. 여러해 동안 이 훌륭한 의사는 우리의 존경하는 친구의 이웃으로 생활해 왔었습니다. 의사는 최근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병의 치료를 위해 인근 주에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자신과 우리의 친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깊이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집을 나서 왕진을 갈때, 문제가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집을 나서는 우리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면 그는 그들이 함께 봉사하고 우정을 나누는 이웃에게 특별히 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그의 목소리는 감동에 떨렸다. 그는 최근에 자신이 병에 걸린 것과 관련하여 몇 개월전, 그가 회복되어 다시 돌아올 것인지도 모른 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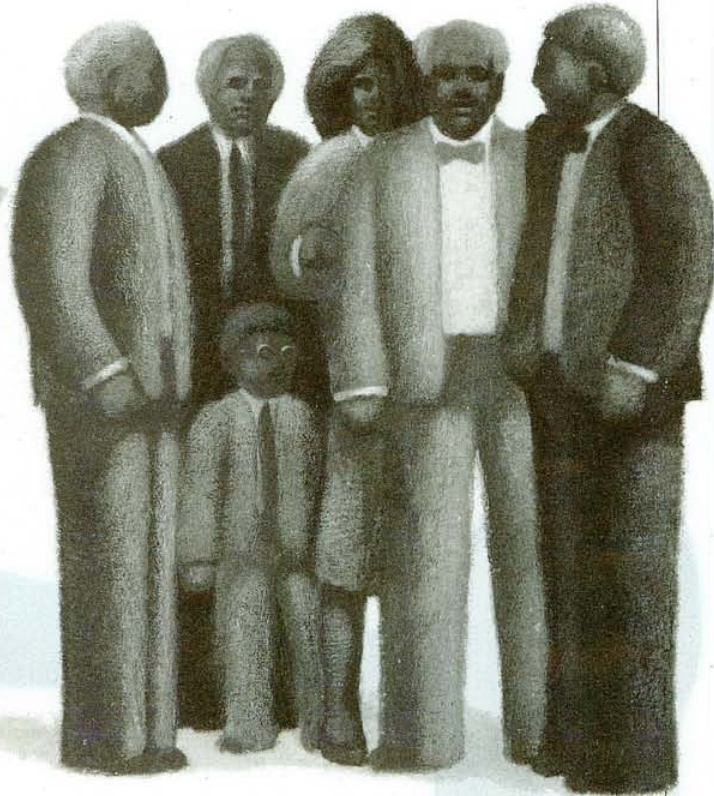


사랑을 위해 하는
봉사는 할수록
즐거워질 것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하는 봉사는
큰 짐이 될
것이다.



Rob Coltrin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기 위한 선행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서 오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을을 떠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의 명예를 기리는 아무런 환송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과 우리의 친구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에 당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봉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그의 친구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자신과 친구가 지역 주민의 눈에 다르게 비쳤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행한 모든 봉사의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이 되기까지 그가 받은 치료비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훌륭한 의사를 잘 알고 그의 자상한 치료로 인해 혜택을 입은 우리들은 한결같이 그가 자신의 자선과 봉사에 대해 너무나 비판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동적인 모임에서 누구도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베푸는 봉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돈이나 다른 물질적인 보상의 형태를 띠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베푼 선행에 대한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에 관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태복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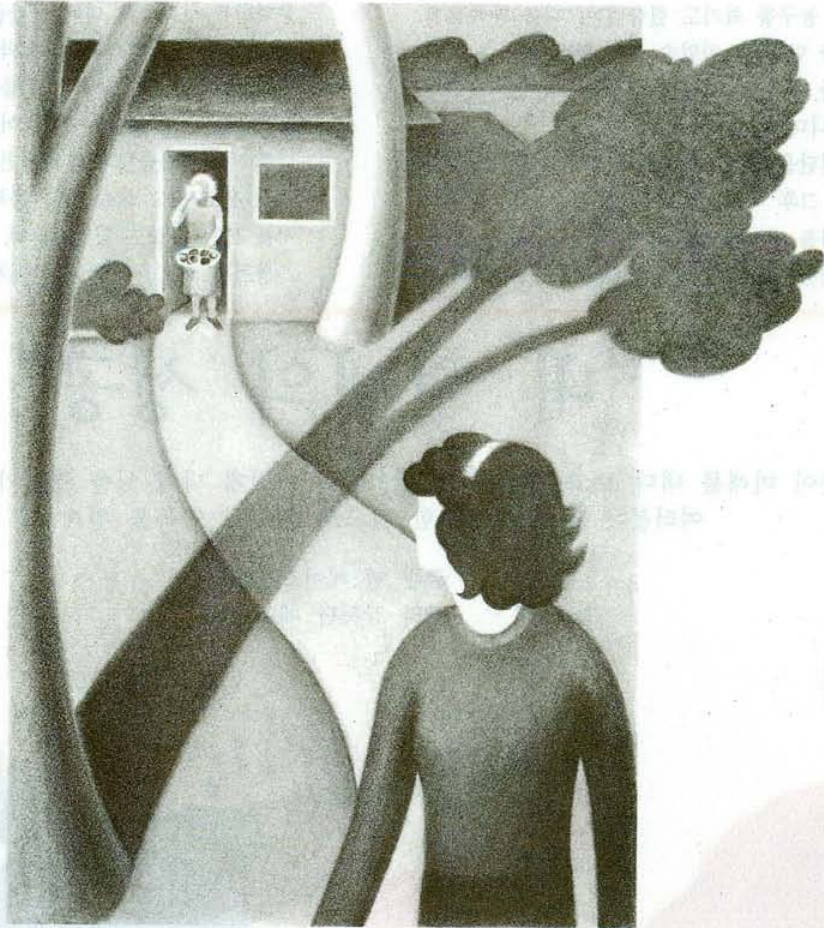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기 위한 선행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서 오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나 혹은 봉사를 치하하는 뱃지나 리본 또는 메달을 받는 것 등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다만 베풀어 주기 위해 베풀 때 우리 생활에서 맛보게 되는 감미로움은 다른 모든 공적인 면에서 얻게 되는 주의와 관심보다는 훨씬 더 값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보상이나 인정받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봉사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세주 자신께서 지니신 가장 바람직한 성품을 개발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봉사의 기쁨을 키워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참된 봉사

커튼 앤더슨



내 어린 시절에 이웃 집에 늘 혼자 시간을 보내며 집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집을 떠날 때면 오랫동안 집을 비웠고, 그러면 나는 일하러 나섰다.

나는 갈퀴나 눈삽 또는 빗자루를 들고 할머니의 집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했다. 때때로 나는 과자 접시에 편지를 써서 갖다 놓기도 했다. 나는 이웃집 할머니와 친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면 나에게 잘 대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러 가지 과외의 일하기를 정말로 즐겼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마음 속의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나의 친절을 인정해준다면 더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에 돌아온 할머니가 감사나 기쁨을 나타내는 기색이 없어 실망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으나 미소의 보답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예배 모임에서 우리는 봉사에 관한 공과를 했는데, 나는 무언가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흥내를 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집에 와서 어머니께 봉사에 관해 물었고 어머니는 성경 구절을 읽어 보라고 하셨다. 그것은 모사이야서 2장 17절이었다.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를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은 내 행동에 대한 귀중한 한가지 교훈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웃 사람은 나의 노력에 관심을 안 가진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나는 스포츠 우승자가 되는 것을 꿈꾸어 왔습니다. 나는 농구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거나 중요한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치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움직이고 샷을 잘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으며 학교 농구팀 선발 때도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슬프게도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축구팀 입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주 동안 나는 주변을 살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나는 훌륭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스포츠보다도 더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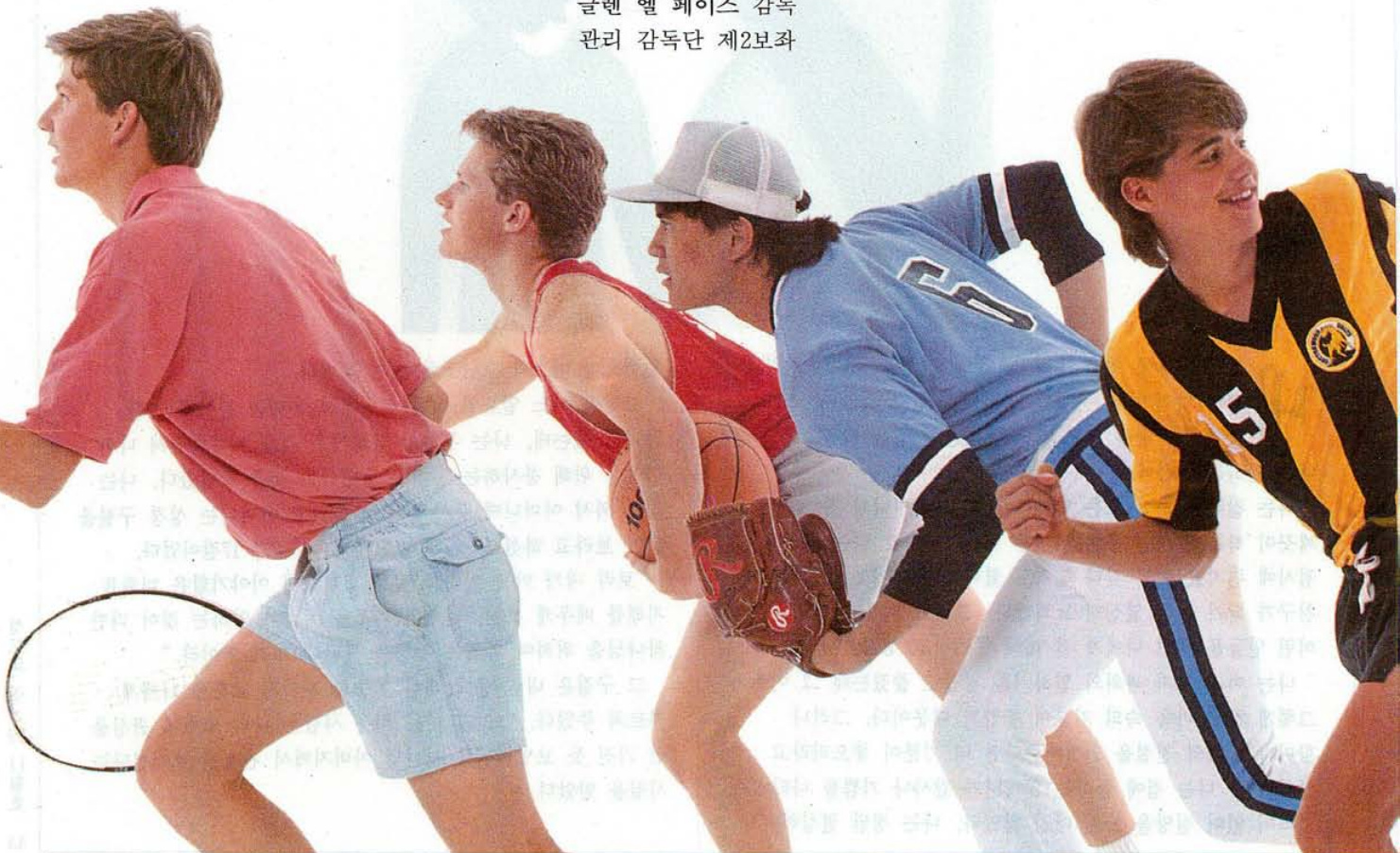
나는 다른 각도에서 급우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훌륭한 운동 선수에게 이미 품고 있던 존경심 이외에도 나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재능을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술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해 놀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그림을 보고 그 재능에 경탄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전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무용수는 우아함과 창의력으로 나를 매혹시켜줍니다. 나는 친구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고 웃고 울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시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형제의 성공”

나는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 보고 25년 후의 급우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귀중한 것으로 입증될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글렌 엘 페이스 감독
판리 감독단 제2보좌



운동 선수들이 인정과 영광을 받는 만큼 이러한 재능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일인가 하고 생각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환호하는 관중의 격려도 받지 못한 채 이러한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시간,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연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 보고 25년후의 급우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귀중한 것으로 입증 될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우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25년후의 급우들을 볼 수 있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현재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보는 눈으로 여러분은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수줍음 많은 소년이 의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늘 독서만 하는 소녀가 장차 기자가 되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우들의 영적인 자질, 즉 그들이 다음 세상이나 영원한 세상으로 가져갈 자질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성취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며 서로의 성공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순수하게 이해하는 것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예는 엘마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했으며 암몬과 그의 형제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들 또한 선교 사업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결국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만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사 이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크게 뜻을 이루게 하사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성취한 것 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나의 형제들의 성공으로 인한 것이니, “내가 형제들의 공적을 생각할 때 나의 혼이 몸에서 떠날 지경이니 이와 같이 나의 기쁨이 크도다.”(엘마서 29:13~14, 16)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과 마른 땅을 주셨으며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을 주셨고 개인적인 개성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가족, 친구를 개인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갖고 더욱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우의 성공이 여러분에게 질투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개인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됩니다.

승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입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는 경쟁이나 인기로 결정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를 이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엘마가 의미한 바와 같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 나의 형제들의 성공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우의 성공이 여러분에게 질투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개인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됩니다.





선교사가 봉사하는 이유

에이 린 스크스비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주기 위한 선행을 할 때 우리는 비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서 오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 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의 한 지부에서 가던 어느 목요일 저녁 모임에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헬라멘의 군인이 되는 것과 선교사로 부름받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부른 뒤 그대로 서 있었다. 장로들과 자매들은 일어서서 선교사 주제가 처럼 된 찬송가 “주 섬기라”를 불렀다. 선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노래에 감동되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다를 쳐다보거나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노래에서 신앙의 간증을 나타내는 선교사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들은 가사를 믿었으며 그들은 선교사도 그들의 노래를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교사와 어린이 모두가 거의 기적적인 신앙의 표현에 대한 증인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그것을 평범한 사건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선교사들 중에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어려서 동안 저축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언제 어느 곳으로라도 부름을 받으면 기꺼이 가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미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전에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언어와 토론을 배우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자기 부담으로 또는 신앙 면에서 똑같이 충실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로 나간다.



훈련원의 지부장으로서 나는 수백명의 젊은 남녀가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의 크나큰 헌신과 신앙으로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나는 기꺼이 주고,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끝이 없음을 보았다. 어느 날 몹시 지치고 일이 부진한 경우 그들은 다음날 더욱 잘 해 보겠다는 각오로 재무장한다. 얼마간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약점을 지닌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다.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강한 목적 의식이 그들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었다.

나는 선교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보다 좀더 빨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워 나가는가 하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는 그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어느 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사업에 관련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나 새롭고 낯선 지역에 가게 될 때 선교사들은 모두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나는 많은 그룹의 선교사들이 주제를 토론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동반자끼리 가끔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를 토론하는 것을 알았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를 찾는 것, 또한 교회 모임에서 하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했다. 많은 연사들이 어렸을 때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관한 개종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후에 복음에 대해 듣고 확신하게 된 생생한 꿈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리아라고 부른 한 선교사는 삼위일체가 아닌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체에 관해 그녀가 아홉이나 열 살 때 꾸었던 꿈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은 그녀가 사립 종교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고 계신 개체로 믿습니까?”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자 그녀는 질문을 중단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20대 초반에 마리아는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결국 그 동료 여성은 마리아에게 그녀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자고 했다. “먼저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하고 마리아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답변에 놀랐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갖고



제시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으며 가능한 한 빨리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첫날에 그녀는 그녀의 교사가 몇 달 전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장로임을 알았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로 많은 견해가 표출되었다. 어떤 선교사들은 부모를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서, 애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또는 가족이나 워드 회원이 그렇게하기를 원하기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또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와 공과를 통해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침 받아온 문화적인 전통의 일부에서 가능성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혹은 사고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나 부끄러운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더욱 개인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힘든 선교사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그들은 “진정한”이유를 찾았다. 그들은 그 일을 해야한다는 홀륭하고 영감을 주는 이유를 갖지 않고는 그들 앞에 놓여진 과제와 어려움을 견디어 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오직 부모를 기쁘게 헤드리고자 했을 뿐이라면, 어려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그다지

가치있는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도 흥미를 느꼈다. 나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다. 그들이 도착하는 날부터 살펴보면서 나는 그들이 발전해 나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얼굴에서, 대화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지는데서,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은 경전 공부에 몰두했으며 언어와 토론을 배우는데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모든 것을 지켜 보면서 나는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였다.

나는 선교 사업이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려는 인간과 하나님의 영사이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선교사는 자신이 개인보다 중요하고 더 위대한 어떤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선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역할에는 가장 필수적인 개념과 모든 의식이 맡겨진 것을 포함한다. 그들이 영을 느끼고 그의 사업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그들이 봉사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



예 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누가복음 5:3)